

부평구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부평구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부평구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연구진

연구책임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김우영(박사)
조성원
우태완

【 목 차 】

□ 제1장 연구개요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제3절 연구 수행체계	6
□ 제2장 지역현황 분석	7
제1절 일반현황	8
□ 제3장 한국GM 부평공장 현황 분석	25
제1절 생산동향	26
제2절 산업연관 현황	30
□ 제4장 부평산업단지 현황 분석	41
제1절 일반현황	42
제2절 산업동향	48
□ 제5장 국내외 산업단지의 기능 및 역할 변화	57
제1절 국내 산업단지의 기능과 역할 변화	58
제2절 해외 사례 및 시사점	71

제6장 부평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87
제1절 부평국가산업단지 활성화의 필요성	88
제2절 부평국가산업단지 발전 방안	93
참고문헌	99

【 표 목 차 】

<표 1-1> 연구 범위	5
<표 2-1>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16
<표 2-2> 동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18
<표 2-3> 인천광역시 시군구별 지역내총생산(기준년: 2015년)	20
<표 2-4> 인천광역시 시군구별 지역내총생산 증감률(전년 대비)	22
<표 2-5> 부평구 지역내총생산의 산업별 비중	23
<표 3-1> 한국GM 출범 후 생산량	27
<표 3-2> 한국GM 부평공장 생산 차종 및 생산량(내수)	28
<표 3-3> 한국GM 부평공장 생산 차종 및 생산량(해외 판매(선적 기준))	29
<표 5-1> 판교테크노밸리 개발사업 개요 및 추진 경과	64
<표 5-2> 판교테크노밸리 공급 용지 기능	64
<표 5-3>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유형 및 기업 수	67
<표 5-4>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업종 비중	67
<표 5-5>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별 유형	68
<표 5-6> 판교테크노밸리 종사자 수	69
<표 5-7> 판교테크노밸리 매출액 및 전년 대비 증감률	70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 체계	6
[그림 2-1] 부평구 행정구역	8
[그림 2-2] 교통지도로 본 부평구 도로 정보(전체 도로)	10
[그림 2-3] 교통지도로 본 부평구 도로 정보(고속도로)	11
[그림 2-4] 교통지도로 본 부평구 도로 정보(국도)	11
[그림 2-5] 교통지도로 본 부평구 도로 정보(지방도)	12
[그림 2-6] 교통지도로 본 부평구 도로 정보(일반도로)	12
[그림 3-1] 부평구 자동차 관련 사업체 수(2006년~2022년)	31
[그림 3-2] 2022년 부평구 자동차 관련 사업 구성(산업분류별)	32
[그림 3-3] 부평구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의 사업체 수 추이(2006년~2022년)	33
[그림 3-4] 2022년 부평구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의 사업체 수(종사자 규모별)	34
[그림 3-5] 부평구 자동차 관련 사업 전체의 고용 규모(2006년~2022년)	35
[그림 3-6] 부평구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의 고용 규모(2006년~2022년)	36
[그림 3-7] 2022년 부평구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의 고용 규모(종사자 규모별)	37
[그림 3-8] 2022년 부평구 자동차 관련 산업 구성(사업체별)	38
[그림 3-9] 부평구 자동차 관련 사업의 단독사업체 수 변화(2006년~2022년)	38
[그림 4-1] 부평국가산업단지 부지	43
[그림 4-2] 부평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배치도	45
[그림 4-3] 부평국가산업단지 업종별 조닝	46
[그림 4-4] 부평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수	48
[그림 4-5] 부평국가산업단지 임차업체 수	49
[그림 4-6] 부평국가산업단지 제조업체 수	50
[그림 4-7] 부평국가산업단지 제조업체 비중	50
[그림 4-8] 부평국가산업단지 가동률	51
[그림 4-9] 부평국가산업단지 생산 실적	52

[그림 4-10] 부평국가산업단지 수출 실적(단위: 백만 달러)	53
[그림 4-11] 부평국가산업단지 고용현황	54
[그림 4-12] 부평국가산업단지 여성고용률	55
[그림 5-1] 판교테크노밸리 목표 및 비전	62
[그림 5-2] 판교테크노밸리 주변 조감도	63
[그림 5-3] 판교테크노밸리 홈페이지 메인화면	66
[그림 5-4] 나니와 기업단지의 공동수주시스템	72
[그림 5-5] 중국경제 세미나(좌), 이종 업종 교류회(우)	73
[그림 5-6] 나니와 기업단지 안전 교육(좌), 컴퓨터 강습(우)	74
[그림 5-7] 공동구인 설명회(좌), 고용센터 연계(우)	74
[그림 5-8] 기업단지 축제(좌), 볼링 대회(우)	75
[그림 5-9] 조합 주차장(좌), 카페(우)	76
[그림 5-10] 집단 건강진단(좌), 녹지화 추진 운동(우)	76
[그림 5-11] Taguspark 지도	76
[그림 5-12] Taguspark 주요시설	76
[그림 5-13] Taguspark Incubator 지원	76
[그림 6-1] 2022년 인천의 특화계수	89
[그림 6-2] 부평국가산업단지의 SWOT 분석	9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 수행체계

제1장 연구개요

평공장과 부평국가산업단지의 산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

- 과업명: 부평구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부평구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적 견인 축인 한국GM 부평공장의 사업축소 등으로 인해 지역 내 제조업 침체 문제 발생
- 이에 따라 부평구 지역경제의 산업구조를 점검하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2. 연구 목적

- 한국GM 부평공장의 부평구 지역경제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생산 및 투자활동, 지역기업과의 연계현황 분석
- 부평국가산업단지의 일반현황 및 기업 간 연계 현황을 파악하고 산업현황 전반에 대한 분석을 추진
-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단의 대응 성공사례 검토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각적인 분석 추진, 이를 통해 한국GM 부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한국GM 부평공장의 현황 분석

- 생산활동 및 지역 내 투자활동 등을 분석
- 한국GM 부평공장과 지역기업과의 연계성 분석

□ 부평국가산업단지의 현황 분석

- 산업환경 분석(일반현황 등)
- 산업연계 분석
 - 단지 내 산업현황 분석
 - 단지 혹은 부평지역 내 연계 가능한 산업환경 분석

□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업단지 구조재편 성공사례 분석

-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안 모범사례 제시
- 부평국가산업단지의 지속성 확보 방향 제시

2. 연구 방법

- 부평지역 제조업의 주요 주체인 한국GM 부평공장과 부평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현황 분석과 이들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를 위해 통계연구, 문헌연구, 조사연구, 비교연구 등의 방법으로 과업을 추진하고자 함
- 경쟁환경 및 산업환경 분석: 통계연구, 문헌연구

- 부평구 지역경제와의 연계성 분석: 통계연구, 문헌연구, 조사연구
- 산업 간 연계 분석: 통계연구, 문헌연구, 조사연구
- 산업의 지속성 확보 방안 제시: 문헌연구, 비교연구
- 글로벌 경쟁환경 및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분석: 통계연구, 문헌연구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과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성 제시: 문헌연구

<표 1-1> 연구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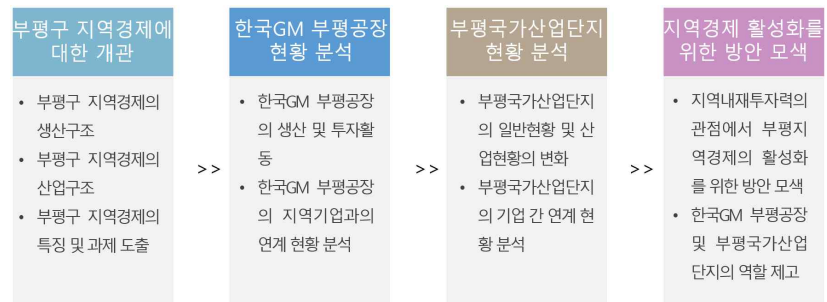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3년	
공간적 범위	■ 부평구 부평동, 산곡동, 청천동, 갈산동 일대 ■ 한국GM 부평공장, 부평국가산업단지	
내용적 범위	■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에 대한 현황 분석 ■ 부평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현황 분석 ■ 글로벌 경쟁환경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재편 사례	

제3절 연구 수행 체계

1. 연구 범위

□ 본 과업은 부평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연구로 다음의 체계를 따름

- 생산활동 및 지역 내 투자활동 등을 분석
- 한국GM 부평공장과 지역기업과의 연계성 분석



[그림 1-1] 연구 체계

제1절 일반현황 제2절 지역현황 분석 결과

제2장 지역현황 분석

제1절 일반현황

1. 인문환경

- 부평구는 9개 법정동, 22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32.00km², 인구는 494,221명¹⁾이며, 인구밀도는 15,444명/km²
- 인구수 기준으로 볼 때 많은 지역은 부평1동(34,980명), 부평4동(34,056명), 부평5동(33,370명), 청천2동(33,060명) 순이며, 적은 지역은 일신동(11,596명), 부평2동(14,436명), 부평6동(14,353명) 순임



자료 : 부평구 기본통계(2023)

[그림 2-1] 부평구 행정구역

1) 2024년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 수출산업공단이 조성된 이후 부평구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한때는 인천광역시 전체 인구의 38.9%를 차지한 시기도 있었음²⁾
- 1965년만 하더라도 당시 부평지역을 포함한 북구의 인구는 8만 6,920명(인천 전체 인구의 17.9%)에 불과
- 수출산업공단이 조성되고, 수도권 전철 및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어 1975년에는 21만 3,167명으로 늘어나 인천 전체 인구의 26.6%를 점유
- 부평으로의 인구 유입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1985년에는 53만 9,246명에 이르렀고, 인천광역시의 인구 점유율 38.9%로 최고조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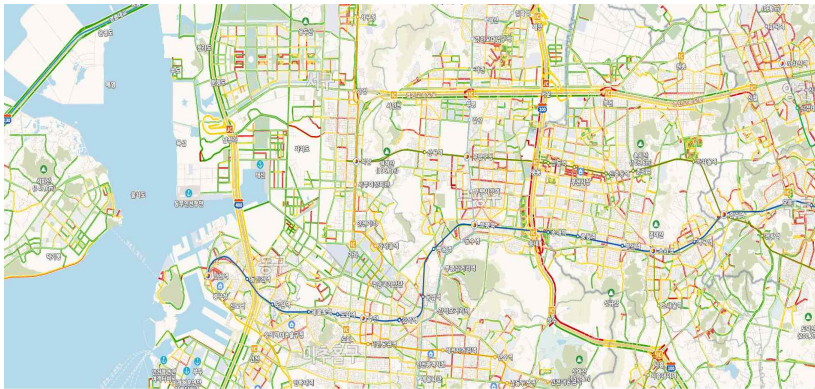
2. 지리적 여건

- 부평구는 인천 북동쪽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부천시와, 북·서·남방으로 계양구, 서구, 남동구와 연결되어 있음
- 면적 32km²로 남서쪽에는 만월산과 철마산 줄기가 도시의 외곽을 감싸고 있고 도시 숲과 공원, 하천 등이 잘 어우러진 지역으로 예부터 인천권과 다른 고유의 생활문화권을 형성하면서 발전
- 부평구는 인천과 경기 서부지역, 서울과 이어주는 지리 공간적 특성을 가짐
- 지역 내 경인철도와 도시지하철, 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이 접하고 있으며, 인천공항과 서울 등 광역 교통망이 잘 발달로 인해 도시성장의 기반이 잘 갖추어진 지역임
-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수도권전철·인천도시철도 1호선·서울도시철도 7호선 등이 도시를 격자형으로 관통하는 수도권 최대 교통요충

2)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 3-1권』, 부평: 부평사편찬위원회, 2021, 13p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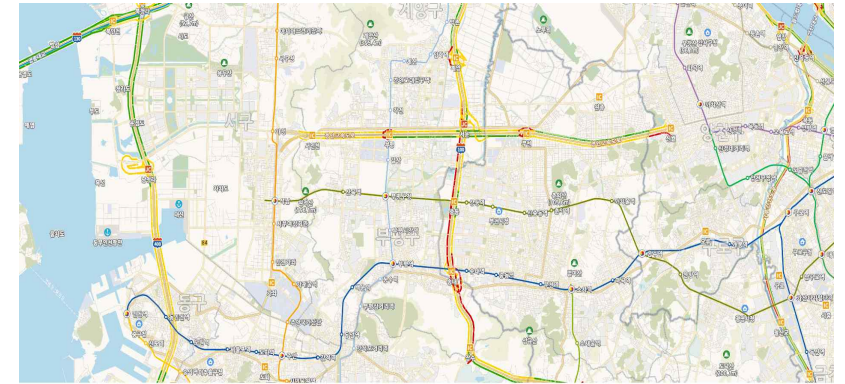
지입

-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통정보를 살펴보면 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경로는 크게 6가지로 계양구 노오지 분기점(JC), 계양 나들목(IC), 부평 나들목, 중동 나들목, 장수 나들목, 남동 나들목으로 진입하는데, 이중 부평구에 위치한 부평 나들목, 중동 나들목, 송내 나들목을 통해 부천을 거쳐 서울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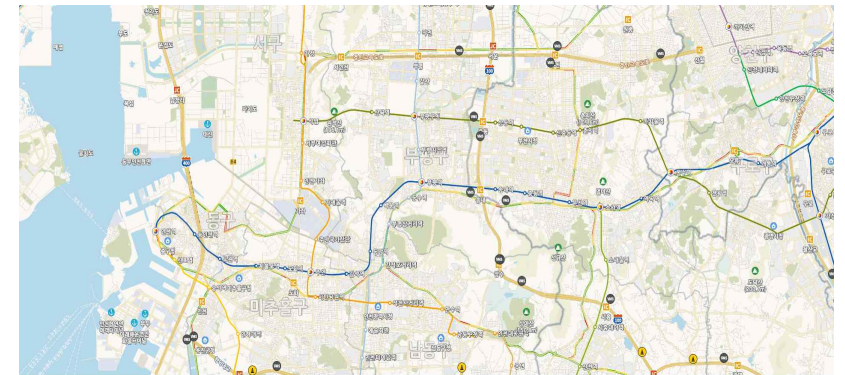
자료 : 부평구의회, 주민친화적 출연기관 발전모형 도출 및 정책 과제 발굴 실시 용역(2023)

[그림 2-2] 교통지도로 본 부평구 도로 정보(전체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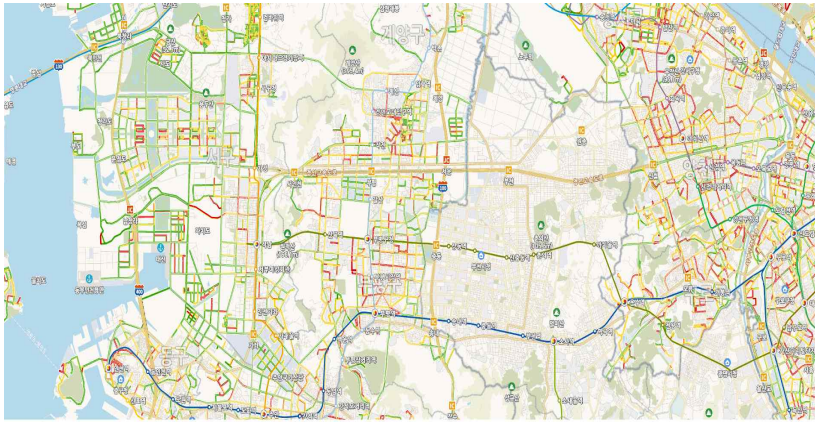
자료 : 부평구의회, 주민친화적 출연기관 발전모형 도출 및 정책 과제 발굴 실시 용역(2023)

[그림 2-3] 교통지도로 본 부평구 도로 정보(고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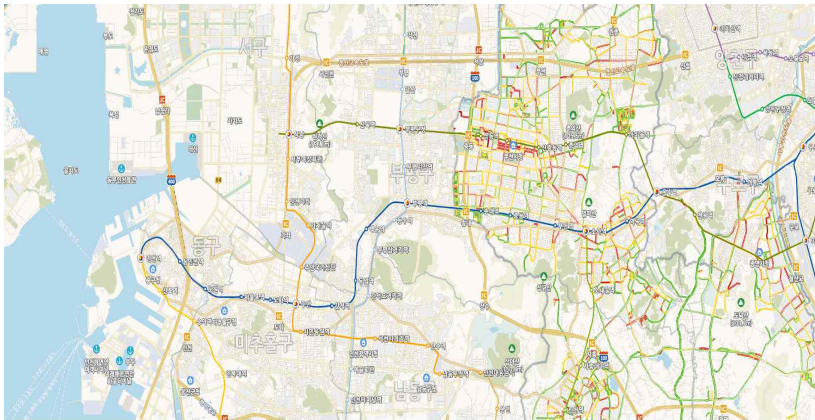
자료 : 부평구의회, 주민친화적 출연기관 발전모형 도출 및 정책 과제 발굴 실시 용역(2023)

[그림 2-4] 교통지도로 본 부평구 도로 정보(국도)



자료 : 부평구의회, 주민친화적 출연기관 발전모형 도출 및 정책 과제 발굴 실시 용역(2023)

[그림 2-5] 교통지도로 본 부평구 도로 정보(지방도)



자료 : 부평구의회, 주민친화적 출연기관 발전모형 도출 및 정책 과제 발굴 실시 용역(2023)

[그림 2-6] 교통지도로 본 부평구 도로 정보(일반도로)

- 국도를 통해 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국도를 통해 부평 IC를 통과하거나 송내 IC를 통과
- 지하철의 경우 국철(1호선, 7호선), 인천지하철(1호선) 부평을 통과·경유하여 서울로 진입하게 됨
- 즉 부평구는 위와 같은 지리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천에서 경기, 서울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인천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줌
-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GM, 부평수출산업단지 등 첨단산업과 국내 최대 지하상가, 부평시장 등 제조업과 유통서비스업이 발달함
- 편리한 교통 여건을 기반으로 일찍이 국가수출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한국GM과 같은 대기업과 1,410여 중·소기업이 입주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고, 최근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해 혁신산업단지 및 생태산업단지로 지정됨
- 이에 따라 지역경제를 선도할 경제 전진기지로 변모하고 있으며, 우림라이온스밸리 및 남광센트렉스, 부평테크시티 등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첨단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있음
- 전국 월드 레코드 아카데미에 단위 면적당 최다상가로 등재된 부평역 지하상가와 인근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유통과 서비스 산업이 발달함

3. 경제 및 산업현황

- 부평구 사업체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47,615개 사업체가 존재하며, 종사자 수는 170,465명으로 조사됨
- 이는 전년 대비 사업체 수는 1,936개(4.2%), 종사자 수는 3,684명(2.2%) 증가한 수치임

- 사업체 구분별로는 단독사업체 45,636개(95.85%), 공장 및 지사 1,573개(3.33%), 본사 및 본점 406개(0.88%)로 조사됨
- 종사자 수는 단독사업체 124,245명(75.23%), 공장 및 지사 22,597명(13.26%), 본사 및 본점 19,623명(11.5%)로 조사됨
- 본사 및 본점의 경우 2021년 대비 사업체 수는 증가하였지만, 종사자 수는 2021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 기준으로 보면, 1~4인 사업체가 41,887개(87.97%), 5~9인 사업체 3,393개(6.92%), 10~19인 사업체 1,393개(2.93%), 20~49인 사업체 710개(1.55%)로 나타남
- 100인 이상 사업체는 78개(0.16%)로 나타나며, 이 중 300인 이상 사업체는 18개로 조사됨
- 2021년에 비해 100인 이상 사업체는 5개 줄어든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2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산업별 사업체·종사자 수를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사업체 수는 도매 및 소매업 13,890개(29.17%), 숙박 및 음식점업 6,011개(12.62%), 운수 및 창고업 5,027개(10.56%) 순으로 나타남
- 3개 부문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부평구 전체 산업 중 절반 이상인 전체 52.35%로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도매 및 소매업을 제외하고 부평구 전체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차지하는 비율이 상이함
-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29,245명(17.16%), 도매 및 소매업 27,346명(16.0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4,120명(14.15%) 순으로 나타남
- 3개 부문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부평구 전체 산업 중 47.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 성격이 강한 산업으로 볼 때 부평구의 산업에서 제조업이 사업체별 종사자 수가 큰 것으로 나타남³⁾
- 단순 산업별 사업체당 종사자의 수를 살펴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65.6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3.8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7.2명), 금융 및 보험업(10.4명), 제조업(6.8명), 수도,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6.6명)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배경에는 과거에 비해 약화된 했지만, 현재까지도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GM 부평공장의 영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물론 한국GM 부평공장을 제외하고도 많은 제조업 군이 형성되어 있겠지만, 자동차 산업 관련 제조업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짐

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경우 공공 기관적 성격이 강한 산업이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리고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의 경우 준공공 기관과 민간 기관이 혼재된 산업 제외할 경우임

<표 2-1>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산 업 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2021		2022		전년 대비	2021		2022		전년 대비
	사업체	구성비	사업체	구성비		종사자	구성비	종사자	구성비	
A. 농업, 임업 및 어업	3	0.01	2	0.00	-1	6	0.00	8	0.00	2
B. 광 업	0	0.00	0	0.00	0	0	0.00	0	0.00	0
C. 제조업	4,286	9.38	4,312	9.06	26	30,118	18.06	29,245	17.16	-873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2	0.03	17	0.04	5	642	0.39	575	0.34	-67
E. 수도,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제생업	51	0.11	64	0.13	13	406	0.24	423	0.25	17
F. 건설업	3,246	7.11	3,303	6.94	57	11,425	6.85	12,209	7.16	784
G. 도매 및 소매업	12,841	28.11	13,890	29.17	1,049	26,459	15.86	27,346	16.04	887
H. 운수 및 창고업	4,563	9.99	5,027	10.56	464	8,162	4.89	8,576	5.03	414
I. 숙박 및 음식점업	5,984	13.10	6,011	12.62	27	14,864	8.91	15,732	9.23	868
J. 정보통신업	746	1.63	824	1.73	78	2,518	1.51	2,788	1.64	270
K. 금융 및 보험업	582	1.27	561	1.18	-21	6,071	3.64	5,816	3.41	-255
L. 부동산업	2,069	4.53	2,042	4.29	-27	4,649	2.79	4,412	2.59	-237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58	2.75	1,318	2.77	60	7,368	4.42	7,535	4.42	167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1,291	2.83	1,292	2.71	1	7,015	4.21	6,618	3.88	-397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51	0.11	53	0.11	2	3,192	1.91	3,476	2.04	284
P. 교육 서비스업	1,800	3.94	1,866	3.92	66	11,156	6.69	11,496	6.74	34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74	3.01	1,404	2.95	30	22,810	13.68	24,120	14.15	1,31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76	2.79	1,303	2.74	27	2,640	1.58	2,852	1.67	212
S.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4,248	9.30	4,326	9.08	78	7,280	4.37	7,238	4.25	-42
계	45,679	100	47,615	100	1,936	166,781	100	170,465	100	3,684

자료 : 부평구, 2022년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2022)

16 •• 부평구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 ☐ 2022년 기준 동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청천2동 4,921개(10.53%), 부평4동 4,792개(10.06%), 부평1동 4,690개(9.85%) 순이며, 종사자 수로 보면, 청천2동 34,900명(21.12%), 부평4동 18,406명(11.04%), 부평1동 14,714명(8.63%), 순으로 조사됨
- ☐ 청천2동이 타동에 비해 종사자 구성비가 절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청천2동에 한국GM 부평공장이 소재한 것에 기인함
 - 또한, 종사자 구성비로 보면 청천2동, 부평4동, 부평1동, 부평5동, 삼산2동 5개 지역이 부평구 전체 종사자에 54.38%를 차지함
 - 비록 2021년 기준 사업체 수 기준으로 볼 때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5개동의 종사자 구성비는 50%를 넘는 수치임
- ☐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고려해 봤을 때, 부평구는 청천2동, 부평1, 4, 5동 총 4개 동이 부평구의 산업 지구로 볼 수 있음
 - 갈산1동, 삼산2동의 경우 산업과 주거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지역은 주거 중심의 지역으로 판단됨

<표 2-2> 동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단위 : 개, 명, %)

동 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2021		2022		전년 대비	2021		2022		전년 대비
	사업체	구성비	사업체	구성비		종사자	구성비	종사자	구성비	
부평1동	4,938	10.81	4,690	9.85	-248	13,956	8.37	14,714	8.63	758
부평2동	852	1.87	895	1.88	43	2,405	1.44	2,119	1.24	-286
부평3동	1,301	2.85	1,296	2.72	-5	3,821	2.29	3,645	2.14	-176
부평4동	4,549	9.96	4,792	10.06	243	18,406	11.04	19,801	11.62	1,395
부평5동	3,984	8.72	3,999	8.40	15	11,898	7.13	11,712	6.87	-186
부평6동	1,194	2.61	1,221	2.56	27	5,112	3.07	5,335	3.13	223
산곡1동	920	2.01	805	1.69	-115	2,537	1.52	2,473	1.45	-64
산곡2동	1,714	3.75	1,788	3.76	74	4,721	2.83	4,652	2.73	-69
산곡3동	1,189	2.60	1,178	2.47	-11	2,818	1.69	2,824	1.66	6
산곡4동	1,011	2.21	1,046	2.20	35	2,355	1.41	2,381	1.40	26
청천1동	1,717	3.76	1,714	3.60	-3	6,399	3.84	6,309	3.70	-90
청천2동	4,809	10.53	4,921	10.34	112	35,229	21.12	34,900	20.47	-329
갈산1동	1,633	3.58	2,642	5.55	1,009	5,917	3.55	8,388	4.92	2,471
갈산2동	1,230	2.69	1,304	2.74	74	2,981	1.79	2,925	1.72	-56
삼산1동	2,225	4.87	2,314	4.86	89	5,815	3.49	5,910	3.47	95
삼산2동	2,478	5.43	2,645	5.55	167	11,783	7.06	11,454	6.72	-329
부개1동	1,467	3.21	1,463	3.07	-4	3,769	2.26	3,663	2.15	-106
부개2동	1,264	2.77	1,352	2.84	88	3,526	2.11	3,280	1.92	-246
부개3동	1,830	4.01	1,890	3.97	60	4,630	2.78	4,813	2.82	183
일신동	1,418	3.10	1,442	3.03	24	6,410	3.84	6,543	3.84	133
삼정1동	1,506	3.30	1,739	3.65	233	6,336	3.80	6,786	3.98	450
삼정2동	2,450	5.36	2,479	5.21	29	5,957	3.57	5,838	3.42	-119
계	45,679	100	47,615	100	1,936	166,781	100	170,465	100	3,684

자료 : 부평구, 2022년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2022)

□ 인천의 지역경제는 양적으로 확대재생산 하는 추세를 보임

□ 인천 지역경제에서 부평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

○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추이를 살펴보면, 부평구는 11.2%~12.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내총부가가치의 경우, 지역내총생산에서 일정 비율의 순생산물세를 제한 수치이기 때문에 지역내총생산의 비중은 큰 차이는 없음

○ 따라서, 인천지역의 전체 총부가가치 중에서 부평구가 차지하는 총부가가치의 비중은 11%~12%의 내외로 추정할 수 있음

□ 이를 토대로 볼 때 인천내총생산에서 부평구는 5번째 수준으로 나타남

○ 지역내총생산에 관한 통계는 최근 자료밖에 없어서 부평구가 인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과거부터 살펴볼 수 없지만, 인천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임

<표 2-3> 인천광역시 시군구별 지역내총생산(기준년: 2015년)

(단위 : 십억, %)

시군구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계	80,138	100	82,257	100	85,792	100	86,427	100	87,964	100	84,908	100	90,326	100
부평구	9,655	12.0	10,097	12.3	10,306	12.0	10,103	11.7	9,880	11.2	10,170	12.0	10,567	11.7
강화군	1,255	1.6	1,332	1.6	1,403	1.6	1,557	1.8	1,609	1.8	1,538	1.8	1,665	1.8
옹진군	596	0.7	660	0.8	666	0.8	645	0.7	662	0.8	816	1.0	878	1.0
중구	13,455	16.8	13,833	16.8	14,139	16.5	14,720	17.0	15,460	17.6	10,456	12.3	12,299	13.6
동구	3,144	3.9	3,037	3.7	3,361	3.9	3,367	3.9	3,318	3.8	3,492	4.1	4,063	4.5
미추홀구	6,413	8.0	6,527	7.9	6,738	7.9	6,733	7.8	6,849	7.8	7,314	8.6	7,681	8.5
연수구	9,058	11.3	9,446	11.5	10,017	11.7	10,673	12.3	11,235	12.8	11,115	13.1	12,483	13.8
남동구	15,137	18.9	15,159	18.4	15,701	18.3	15,290	17.7	15,388	17.5	15,557	18.3	16,453	18.2
계양구	4,119	5.1	4,130	5.0	4,323	5.0	4,308	5.0	4,659	5.3	4,575	5.4	4,863	5.4
서구	17,306	21.6	18,036	21.9	19,140	22.3	19,026	22.0	18,894	21.5	19,128	22.5	21,381	23.7

자료 : 통계청

20 • 부평구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 ☐ 전년 대비 증감률로 살펴볼 때, 인천의 지역경제는 특정 몇 해를 제외하고 성장하는 추세를 시현
- 인천지역 총생산액은 '코로나-19' 기간 중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임
- ☐ 군·구별로 살펴보면, 특정 몇 해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성장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2015년 대비 2021년 증감률로 살펴볼 때 옹진군, 연수구, 강화군, 동구, 서구가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옹진군, 강화군의 경우 인천광역시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두 개 군을 제외하고 보면, 연수구, 동구, 서구 순으로 볼 수 있음
- ☐ 부평구의 경우 남동구와 함께 성장이 둔화하는 양상으로 보임
- 2021년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연수구나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도심인 점과 부평구와 남동구가 초기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인천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했지만,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의 변화가 늦어지면서 부평구의 성장동력이 더딘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보임

<표 2-4> 인천광역시 시군구별 지역내총생산 증감률(전년비)

(단위 : %)

시군구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5년 대비
총계	2.58%	4.12%	0.74%	1.75%	-3.60%	6.00%	12.7%
부평구	4.38%	2.02%	-2.00%	-2.26%	2.85%	3.75%	9.4%
강화군	5.80%	5.09%	9.85%	3.23%	-4.61%	7.68%	32.8%
옹진군	9.74%	0.85%	-3.20%	2.58%	18.88%	7.04%	47.4%
중구	2.73%	2.16%	3.94%	4.79%	-47.85%	14.99%	-8.6%
동구	-3.52%	9.63%	0.20%	-1.50%	4.99%	14.05%	29.2%
미추홀구	1.75%	3.12%	-0.07%	1.69%	6.37%	4.77%	19.8%
연수구	4.11%	5.70%	6.14%	5.00%	-1.08%	10.96%	37.8%
남동구	0.14%	3.45%	-2.69%	0.64%	1.08%	5.44%	8.7%
계양구	0.25%	4.47%	-0.34%	7.54%	-1.84%	5.92%	18.1%
서구	4.05%	5.77%	-0.60%	-0.70%	1.22%	10.54%	23.5%

자료 : 통계청

□ 부평구 지역내총생산에서 산업별 총부가가치 비중은 2021년 기준 제조업(24.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업(11.3%)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도매·소매업의 경우 2015년 7.2%에서 2016년 7.3% 증가한 후 2017년~2018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였음

○ 사업서비스업, 건설업, 정보통신업은 점차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의 경우 2015년 3.1%에서 2019년 3.3%로 성장하다가 2020년 2.8%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보임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KSIC) 기준으로 볼 때 서비스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5년 62.8%에서 2020년 65.4%로 소폭 증가하고 있음⁴⁾

4)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은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제조업은 2016년 35.7% 이후 다른 산업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GM 부평공장의 가동률 축소 장기화와 코로나-19의 여파가 겹치면서 자동차 부품 관련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음

<표 2-5> 부평구 지역내총생산의 산업별 비중

(단위 : %)

부평구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부가가치(기초가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제조업	35.0	35.7	34.3	31.8	30.2	27.1	24.4
부동산업	11.5	11.0	10.8	11.0	11.6	11.6	11.3
사업서비스업	5.6	5.7	6.2	6.5	6.0	7.3	7.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3	6.2	6.9	7.5	8.2	7.9	7.8
도매 및 소매업	7.2	7.3	7.1	7.1	7.4	7.9	7.8
금융 및 보험업	7.6	8.4	8.6	9.4	7.5	7.5	7.3
건설업	1.6	2.0	2.7	3.0	3.9	5.6	7.2
교육 서비스업	7.2	6.8	6.7	6.7	6.8	6.4	6.1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6	4.0	4.4	4.7	4.7	4.7	4.8
정보통신업	3.2	3.3	3.1	3.1	3.6	4.2	4.2
운수 및 창고업	2.6	2.5	2.5	2.6	2.9	2.5	2.7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3.1	3.1	3.0	3.1	3.3	2.8	2.7
숙박 및 음식점업	2.9	2.8	2.7	2.7	2.9	2.2	2.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1	1.0	1.0	0.9	0.9	0.8	0.9
농업, 임업 및 어업	0.5	0.2	0.1	0.0	0.0	0.0	0.0

자료 : 통계청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13개로 분류하고 있음

제1절 생산동향

제2절 산업연관 현황

제3장 한국GM 부평공장 현황

제1절 생산동향

1. 한국GM 부평공장 개요

가. 일반현황

- 한국GM 부평공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일원에 위치
 - 1962년에 승용2공장 준공을 시작으로 1986년 승용1공장, 1971년에 엔진구동공장(1350cc 엔진) 등의 자동차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공장 부지는 991,740㎡에 달함
 - 현재, GM의 트레일블레이저(내수 및 수출), 뷰익 앙코르GX(수출), 엔비스타(수출) 차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44만 대에 이르는 생산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부평 지역경제(특히, 제조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엔진의 경우, 뷰익 앙코르GX 차량에 장착되는 CSS 엔진을 생산하고 있으며 2023년 179,880대를 생산
- 한국GM 부평공장의 생산현황은 현재 승용1공장과 엔진구동공장이 가동중
 - 2022년 11월 26일 부평2공장 폐쇄로 생산량이 축소되었고 소속 노동자 1,200여 명은 각각 창원공장(700여 명), 부평1공장(500여 명)으로 전환 배치됨

- 이에 따라 생산 차종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매우 높은 수출의존도를 보임
 - 트레일블레이저 및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미국 내 경쟁력(미국향) 변화에 따라 한국GM 부평공장의 전체 생산량이 크게 좌우됨
- 한편, 최근 6,900억 원 규모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PHEV)생산, 개발 계획이 전면 취소되어 투자활동 또한 크게 위축됨

<표 3-1> 한국GM 출범 후 생산량

	내수(대)	내수+수출(대)	국내 점유율(%)	수출의존도(%)
2002	159,975	1,622,268	9.9	90.1
2003	127,759	1,318,312	9.7	90.3
2004	104,457	1,093,652	9.6	90.4
2005	107,583	1,142,562	9.4	90.6
2006	128,332	1,164,254	11.0	89.0
2007	130,542	1,219,335	10.7	89.3
2008	116,520	1,154,483	10.1	89.9
2009	114,845	1,394,000	8.2	91.8
2010	125,730	1,465,426	8.6	91.4
2011	140,705	1,474,637	9.5	90.5
2012	145,702	1,410,857	10.3	89.7
2013	151,040	1,383,358	10.9	89.1
2014	154,381	1,463,893	10.5	89.5
2015	158,404	1,589,393	9.9	90.0
2016	180,275	1,600,154	11.3	88.7
2017	132,378	1,560,202	8.5	91.5
2018	93,317	1,552,346	6.0	94.0
2019	76,471	1,538,826	5.0	95.0
2020	82,955	1,611,218	5.1	94.9
2021	54,292	1,440,786	3.8	96.2

자료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표 3-2> 한국GM 부평공장 생산 차종 및 생산량(내수)

		2020	2021	2022	2023
승용차	스파크	28,935	17,975	10963	·
	말리부	6,548	3,107	1509	·
	카마로ss	92	93	74	·
	볼트EV	1,579	1,016	696	248
	승용차 계	37,156	22,195	13245	1,770 (단종차량 포함)
RV	트랙스	6,853	2,540	1240	·
	트랙스 크로스 오버	·	·	·	23,656
	볼트EUV	·	·	1910	1,628
	트레일블레이저	20,887	18,286	14561	7,521
	이쿼녹스	1,492	552	1101	656
	트래머스	4,035	3,483	1945	1,162
	타호	·	·	387	249
	GMC 시에라	·	·	·	443
	RV 계	33,268	24,861	21144	35,322
경상용차	콜로라도	5,049	3,754	2848	2,663
	다마스	3,601	1,989	·	·
	라보	3,879	1,487	·	·
	경상용차 계	12,529	7,230	2848	1,663
내수 계		82,954	54,292	37,237	38,755

자료 : 한국GM 홈페이지

<표 3-3> 한국GM 부평공장 생산 차종 및 생산량(해외 판매(선적 기준))

			2020	2021	2022	2023
세그먼트	경승용차		58,475	16,229	19,952	·
	RV	트레일블레이저	·	·	·	213,169
		트랙스크로스오버	·	·	·	216,135
	RV 계		219,859	161,166	202,538	429,304
	중대형승용차		7,165	5,357	5,148	·
수출 계			368,453	237,044	227,638	429,304

자료 : 한국GM 홈페이지

제2절 산업연관 현황

1. 부평구의 자동차 관련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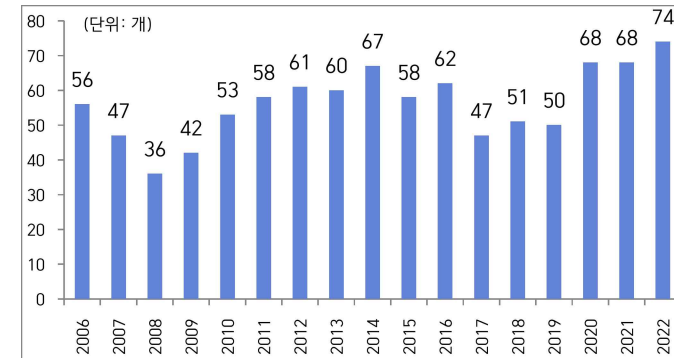
가. 부평구 자동차 관련 산업의 구성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 관련 산업은 산업분류 기준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으로 대부분류됨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자동차 관련 산업으로 대부분류되는 사업체는 총 74개임
 - 56개 사업체가 존재했던 2006년에 비해, 총 18개의 사업체가 증가했음
 -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총 6차례의 크고 작은 감소가 있었으나, 2009년 이후부터 사업체 수는 전반적으로 지속적 증가 경향을 보임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세부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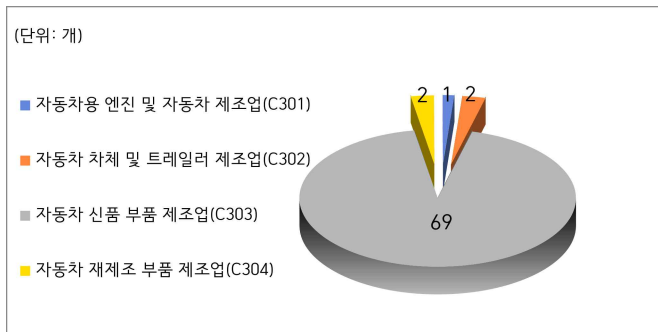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즉 부평구의 자동차 관련 산업은 다시 ①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②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 ③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303), ④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C304)으로 세부 분류됨
 - 2022년 말 기준, 부평구에서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으로 분류된 사업체는 한국GM 단 1개의 사업체임
 - 또한,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으로 분류되는 사업체는 2개,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303)으로 분류되는 사업체는 69개 임
 - 아울러, 전체 74개의 자동차 관련 사업체 가운데, 2개의 사업체는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C304)으로 분류됨



자료 : 부평구, 각 년도 사업체조사 보고서

[그림 3-1] 부평구 자동차 관련 사업체 수(2006~2022년)

- 사업체의 전체규모를 종합해서 보면, 부평구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관련 산업은 한국GM이 속해있는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체가 속해있는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303)임
 - 2022년 말 기준,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과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C304)의 경우, 부평구에는 총 4개의 사업체가 있음
 - 하지만, 4개의 사업체 모두 4인 이하의 소규모 영세 사업체로 파악되어, 부평구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및 다른 영역으로의 파급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추정됨



자료 : 부평구, 각 년도 사업체조사 보고서

[그림 3-2] 2022년 부평구 자동차 관련 산업 구성(산업분류별)

나. 부평구 자동차 관련 산업의 사업체 수 및 고용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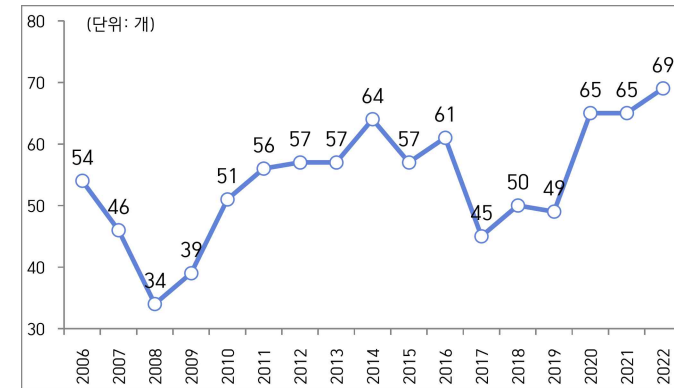
□ 사업체 수

- 2006년부터 2022년까지, 부평구에 있는 자동차 관련 산업의 사업체는 그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으로 보임
 - 사업체 수의 전반적인 증가는 주로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303)에서 나타남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의 사업체 수는 1개(한국GM)로 비교 기간 변함이 없음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의 사업체 수는 1~3개의 범위에서 증가와 감소가 나타남
 -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C304)으로 분류되는 사업체의 수는 관련 통계가 수집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0~2개의 범위에서 증가와 감소가 확인됨
- 부평구의 자동차 관련 산업의 사업체 수 변화는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303)이 주도하고 있음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의 사업체(C303)는 총 69개임
- 54개의 사업체가 존재했던 2006년과 비교하면, 사업체는 15개 증가함
-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체 수는 증가와 감소를 여러 차례 반복했으나, 2009년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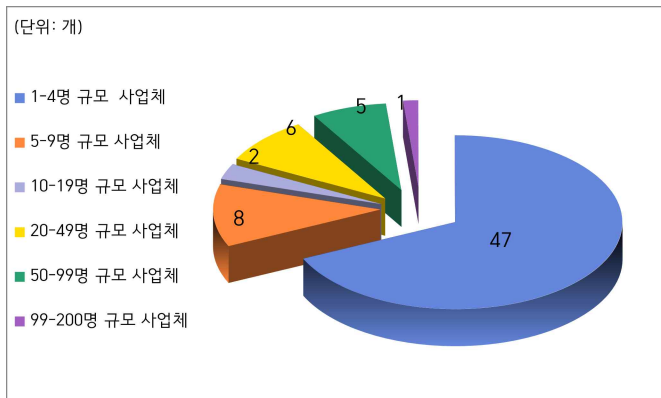
○ 사실상, 부평구 자동차 관련 산업의 사업체 수는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303)이 견인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사업체 수와 비례하여 전체 고용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303)의 사업체 수를 종사자 규모별로 세분화해 보면, 2022년 말 기준, 총 69개의 사업체 가운데 1~4명 규모의 사업체는 47개, 5~9명 규모의 사업체는 8개, 10~19명 규모의 사업체는 2개, 20~40명 규모의 사업체는 6개, 50~99명 규모의 사업체는 5개, 그리고 100~299명 규모의 사업체는 1개로 파악됨



자료 : 부평구, 각 년도 사업체조사 보고서

[그림 3-3] 부평구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의 사업체 수 추이(2006~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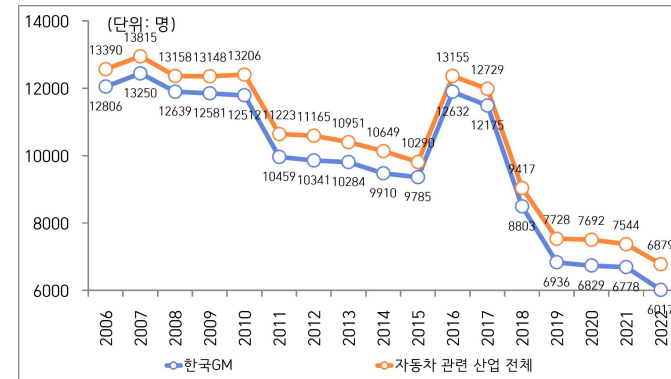
자료 : 부평구, 각 년도 사업체조사 보고서

[그림 3-4] 2022년 부평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사업체 수(종사자 규모별)

□ 고용 규모

- 2006년부터 2022년까지, 부평구에서 자동차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됨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자동차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는 6,879명으로 남자가 6,319명, 여자가 560명 임
 - 2006년의 경우, 총근로자 수는 13,390명(남자 12,804명, 여자 586명)에 도달하였으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2018년 고용 규모는 처음으로 1만 명 이하를 기록함
- 이와 같은 고용감소를 직접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주체는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의 사업체, 즉 한국GM임
 - 한국GM은 비교 기간, 고용 규모가 최대 13,250명(남자 12,654명, 여자 596명)까지 확장되었으나, 2022년 말 현재, 그 규모는 역대 최소인 6,017명(남자 5,735명, 여자 282명)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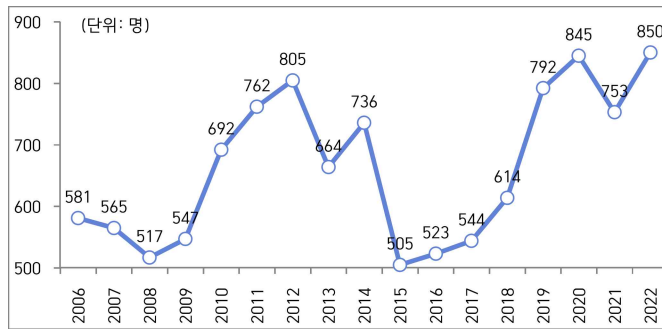
- 부평구에서 자동차 관련 사업체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한국GM의 고용 급감 추세로 인해, 사실상, 자동차 관련 산업의 고용 규모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임



자료 : 부평구, 각 년도 사업체조사 보고서

[그림 3-5] 부평구 자동차 관련 산업 전체의 고용 규모(2006~2022년)

- 이러한 경향 가운데,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3)의 고용 규모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고용의 절대적인 규모는 한국GM에 비해서 작은 편이나,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3)의 고용 규모는 계속해서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 2022년 말 기준, 그 규모는 850명으로, 비교 기간 중 가장 큰 고용 규모를 기록함
 - 특히, 고용 규모가 사업체 수의 증가에 상당 부분 비례하여 확장하고 있는 경향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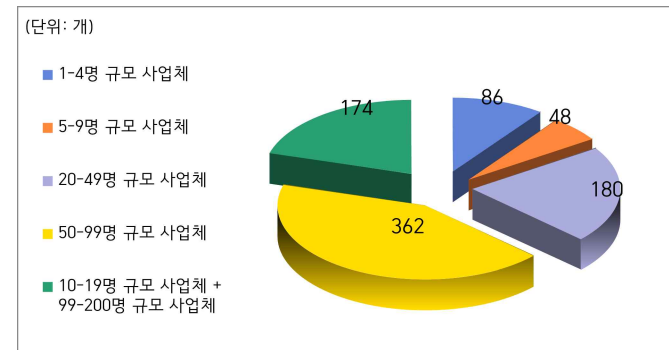
자료 : 부평구, 각 년도 사업체조사 보고서

[그림 3-6] 부평구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의 고용 규모(2006~2022년)

○ 한국GM의 지속적인 고용 규모 축소가 직접적인 영향이 되어, 그 결과 부평구 자동차 관련 산업의 고용 규모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303)의 고용 규모가 확대하는 원인은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303) 영역으로 한국GM에서 실직한 노동력이 일정 부분 흡수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303)의 고용 규모를 종사자 규모별로 세분화해 보면, 2022년 말 기준, 총 69개의 사업체에 고용된 850명의 근로자는 1~4명 규모의 사업체에 86명, 5~9명 규모의 사업체에 48명, 20~40명 규모의 사업체에 180명, 50~99명 규모의 사업체에 362명이 각각 고용된 것으로 파악됨

– 10~19명 규모의 사업체와 100~299명 규모의 사업체에 고용된 각각의 근로자 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들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 수는 전체 고용 규모를 근거로 총 174명인 것으로 추정됨



자료 : 부평구, 각 년도 사업체조사 보고서

[그림 3-7] 2022년 부평구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의 고용 규모(종사자 규모별)

□ 사업체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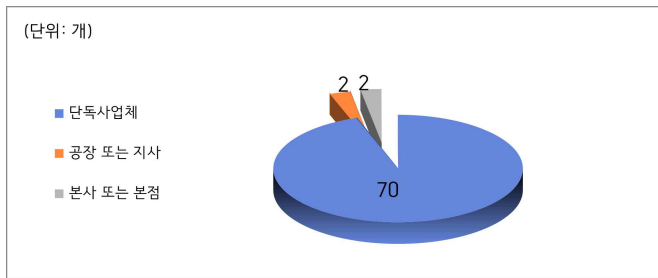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부평구에서 자동차 관련 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체 74개는 크게 3가지 형태, 즉 ‘단독사업체’, ‘공장 또는 지사’, ‘본사 또는 본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74개의 사업체 가운데, 단독사업체는 70개, 공장 또는 지사로 분류되는 사업체는 2개, 본사 또는 본점으로 분류되는 사업체는 2개 임

– 단독사업체의 경우, 52개였던 2006년에 비해 총 18개의 사업체가 증가함

– 공장 또는 지사의 경우,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체 수는 큰 폭의 변화 없이 1~5개에서 증가와 감소가 불규칙적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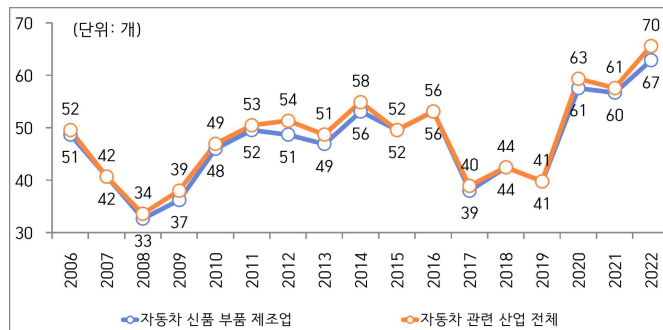
– 본사 또는 본점의 경우, 비교 기간, 사업체 수는 2014년 5개까지 증가했지만, 그 이후로는 그 수가 1~4개에서 증가 또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자료 : 부평구, 각 년도 사업체조사 보고서

[그림 3-8] 2022년 부평구 자동차 관련 산업 구성(사업체별)

- 2022년 말 현재, 부평구의 자동차 관련 산업 영역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가 분포된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303)의 영역의 경우, 총 69개의 사업체가운데 단독사업체는 67개로 파악됨
- 2006년과 비교하면, 단독사업체의 수는 16개 증가했으며, 장기적 시계열을 보면 몇 차례의 크고 작은 감소가 있었지만,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됨



자료 : 부평구, 각 년도 사업체조사 보고서

[그림 3-9] 부평구 자동차 관련 산업의 단독사업체 수 변화(2006~2022년)

다. 부평구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

□ 단독사업체의 부평구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

- 자동차 관련 산업 영역에 있는 단독사업체의 경우, 행정상의 근거지뿐 아니라 실질적인 근거지를 부평구에 둔 사업체로, 이들은 부평구 지역경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체라고 할 수 있음
- 단독사업체는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303) 영역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용 규모는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영역에 이어 두 번째로 크기 때문에, 부평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작지 않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그 사업체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각각의 사업체의 인력 규모는 한국GM 1개의 사업체에 비해 월등하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단독사업체가 부평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한국GM이 부평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보다는 분명히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추정됨

□ 본사 또는 본점의 부평구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

- 사업체 분류상 본점 또는 본사로 분류되는 사업체 역시 부평구 지역경제에 다양한 형태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주체라고 할 수 있음
- 2022년 말 현재, 부평구에서 자동차 관련 산업에 속한 사업체 가운데 본사 또는 본점으로 분류되는 사업체는 총 2개에 불과함
- 하지만, 그 가운데 1개의 사업체는 한국GM이며, 이들의 인력 규모는 단독사업체의 약 7배에 해당함
- 한국GM은 1개의 단일 사업체이지만 방대한 인력 규모로 인해, 그들이 부평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장기간 한국GM의 인력 규모가 급속도로 그리고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들의 인력 급감으로 인한 부평구 지역경제의 부정적 파급 효과가 장기적이고 연속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됨

제1절 일반현황

제2절 산업동향

제4장 부평국가산업단지 현황

제1절 일반현황

1. 부평국가산업단지 개요

가. 일반현황

- 부평국가산업단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일원에 위치
 - 1960년대 후반 수출 진흥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조성하였으며,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수도집중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1965년 6월에 부평수출산업공단 공업단지로 지정되었으며 1969년 10월에 부평수출산업공단 공업단지로 준공됨



자료 : 구글 위성지도

[그림 4-1] 부평국가산업단지 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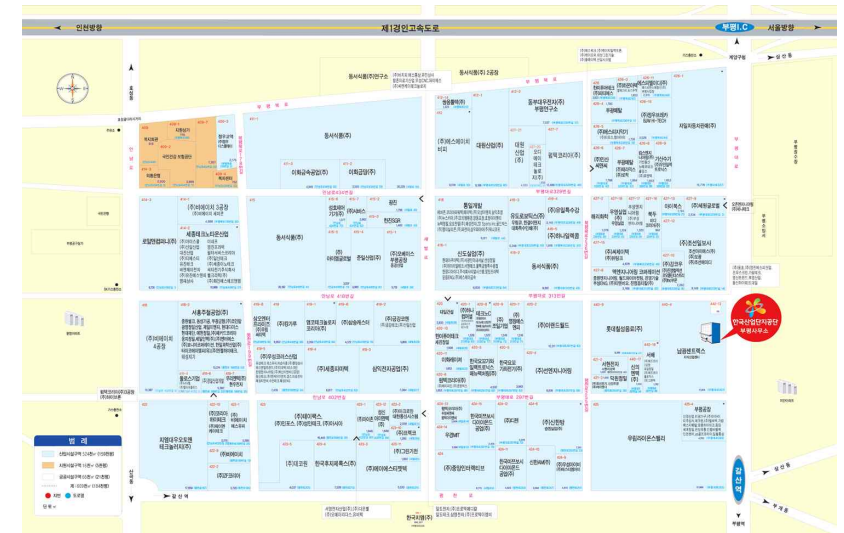
- 단지 규모는 총 610,000㎡이며, 산업시설구역 524,000㎡, 지원시설구역 17,000㎡, 공공시설구역 69,000㎡로 이루어져 있음
- 부평국가산업단지는 북쪽으로 제1경인고속도로, 서쪽으로는 효성동(위)과 산곡동(아래)을 연결하는 안남로, 동쪽으로는 계양구청(위)과 부평역(아래)을 연결하는 부평대로 그리고 남쪽은 청천오거리(좌)와 갈산역사거리(우)를 연결하는 평천로에 의해서 사다리꼴 모양의 반듯한 부지를 차지

- 단지 내부에는 부평북로 236번길, 평천로255번길, 새벌로, 부평북로178번길, 안남로434번길, 안남로428번길, 안남로402번길, 평천로199번길이 교차하면서 전체 부지는 자연스럽게 16개의 각기 다른 크기의 블록으로 나누어짐
- 부평대로변에 자리 잡은 갈산역이 단지 오른쪽 아래(부평역 방향으로)와 바로 연결되고, 사방에서 차량 진입이 가능하므로 대중교통 및 승용차 연계가 양호함
- 단지 북쪽으로 제1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한 것은 수도권과 연계를 위해 훌륭한 지리적 조건임

나. 사업체 현황

□ 부평국가산업단지의 사업체

- 공장부지규모 상위업체를 살펴보면 동서식품(주) 53.1천㎡, 한국GM(주) 17.7천㎡ 순
- 상당수가 제조업 관련 업체이며 전기·전자, 기계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비제조 업체도 다수 존재
 - 제조업 관련 업체: 2023년 기준 전기·전자(583개), 기계(431개), 석유화학(122개) 순
 - 비제조업: 378개로 전체 업체 수 중 20.7%를 차지함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부평사무소

[그림 4-2] 부평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배치도

고도기술산업
지식산업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부평사무소

[그림 4-3] 부평국가산업단지 업종별 조닝

□ 부평국가산업단지의 업종별 현황

- 현재 부평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사실상 구체적인 성격이나 기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음
 - 개별 필지 내에 자리한 건물도 특별한 원칙이 없는 상태임
- 단지 접근성이나 주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기업이 입주하거나 활용하는 방식 등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 부평국가산업단지의 업종별 구역 지정(zoneing)을 ‘고도기술산업’과 ‘지식산업’의 두 종류로 지극히 단순하게 구분함
 - 고도기술산업 및 지식산업의 범위가 매우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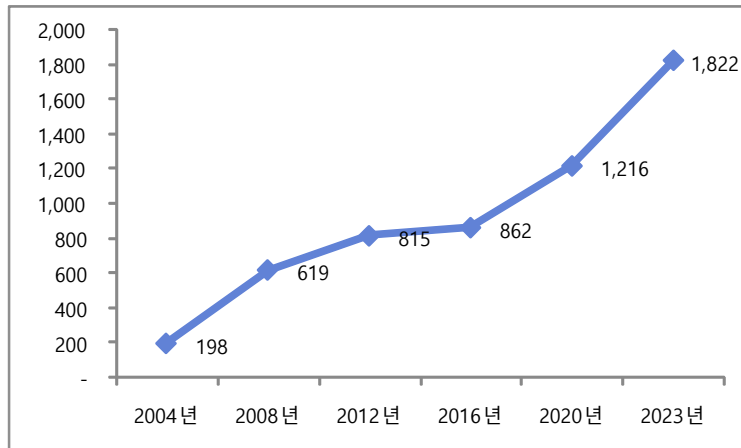
형식적인 분류는 사실상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음

- 부평국가산업단지는 다양한 업체가 필요에 따라 혼재한 모습을 보임

제2절 산업동향

1. 입주업체 현황

가. 입주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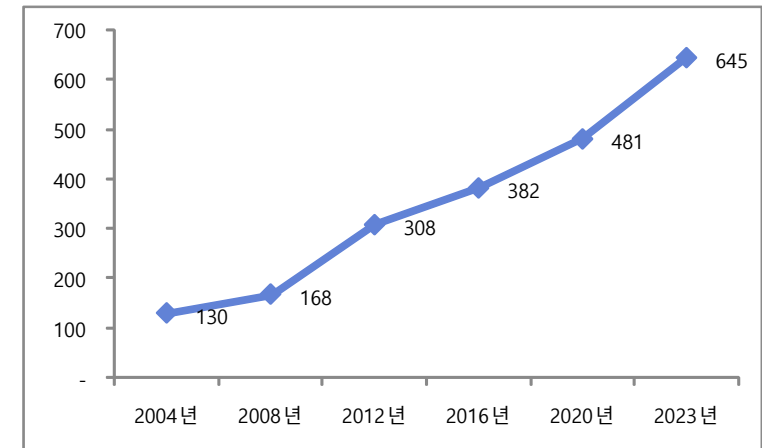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그림 4-4] 부평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수

□ 부평국가산업단지의 입주업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2004년 198개 업체에서 2023년 1,822개 업체로 약 10배 이상 증가함
- 그러나 부지 면적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대기업이 이주하고 중소기업이 늘어난 결과로 예상됨
- 따라서 지속적인 중소기업 관련 지원 정책이 요구됨

나. 임차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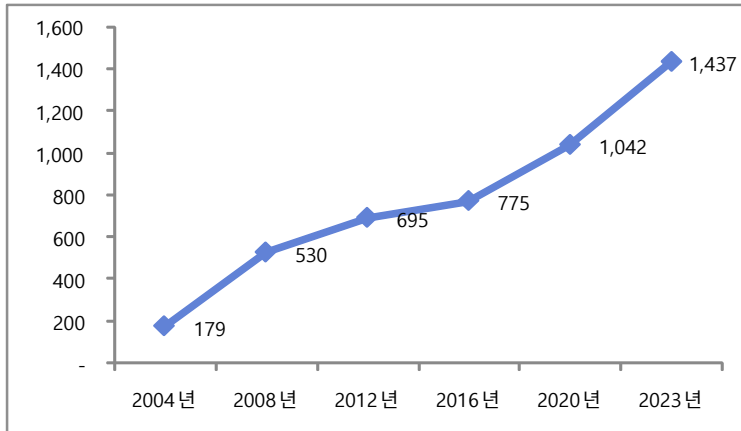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그림 4-5] 부평국가산업단지 임차업체 수

□ 부평국가산업단지의 임차업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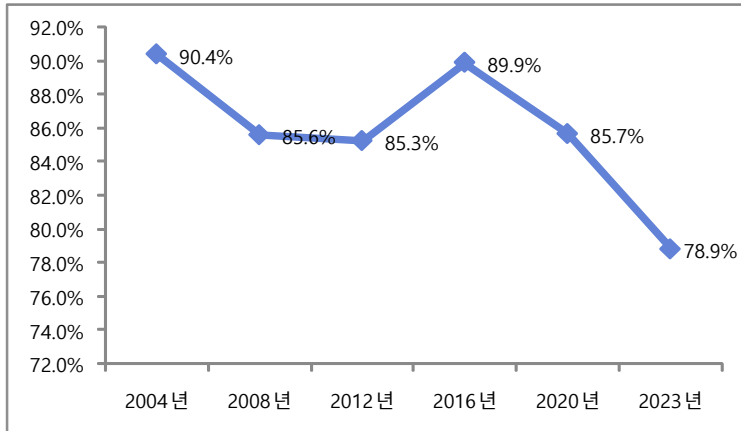
- 2004년 130개 업체에서 2023년 기준 645개 업체로 약 5배 이상 증가함
- 그러나 전체 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2004년 65.7%에서 2023년 35.4%)
- 현재 시행 중인 임차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 제조업체 수 및 비중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그림 4-6] 부평국가산업단지 제조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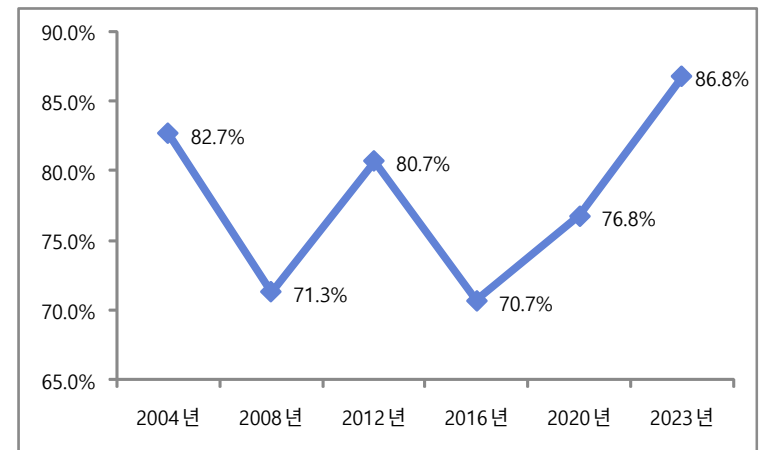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그림 4-7] 부평국가산업단지 제조업체 비중

□ 부평국가산업단지의 제조업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2004년 179개 업체에서 2023년 1,437개 업체로 약 8배 이상 증가함
- 그러나 전체 업체 중 제조업체의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 89.9%로 잠깐 증가하다 이후 계속 감소하여 현재 78.9%를 차지함

라. 가동률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그림 4-8] 부평국가산업단지 가동률

□ 부평국가산업단지의 가동률은 70%~90%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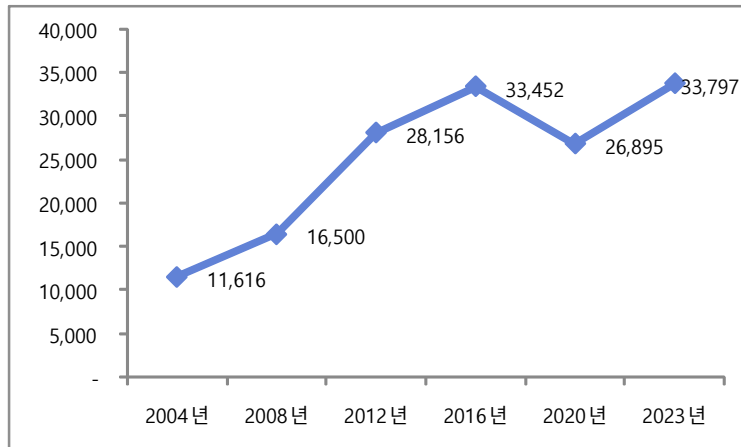
- 2004년 82.7%, 2012년 80.7%, 2020년 76.8%, 2023년 86.8% 등 기간마다 등락 폭이 있음
- 부평국가산업단지는 수출단지로 시작하였으며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글로벌 경기 및 국내 경기에 따라 공장가동률의 변화가 클 수밖에 없는 특징을 보임

- 특히, 협력업체의 경우 원청업체의 기업정책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업체 간 협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2. 생산 및 수출 현황

가. 생산실적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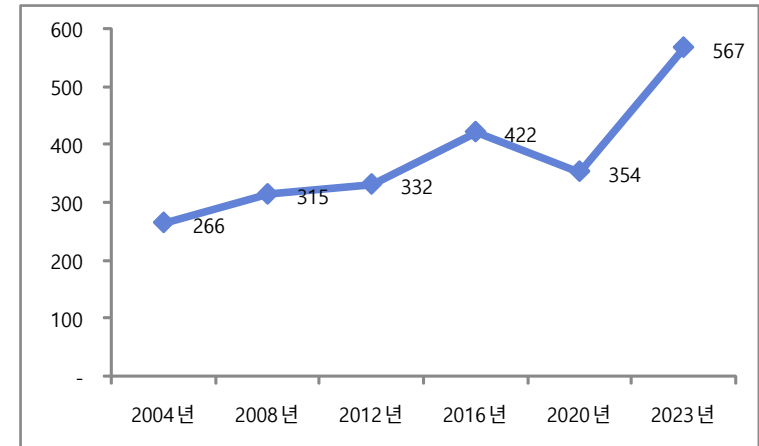
[그림 4-9] 부평국가산업단지 생산실적((단위: 억 원))

- 부평국가산업단지의 생산 실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2004년 11,616억 원에서 2023년 33,797억 원으로 약 3배 증가함
 - 2020년의 경우, 2016년 33,452억 원에서 26,895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이

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의 특수성에 기인함

- 그러나 상승률은 점차 둔화하고 있으며 이를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나. 수출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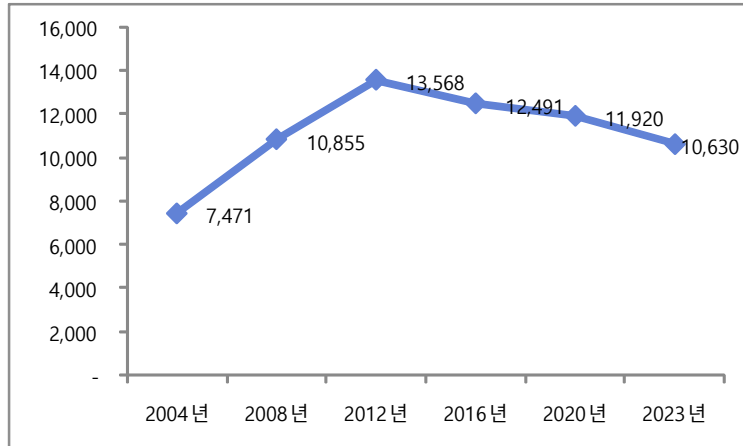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그림 4-10] 부평국가산업단지 수출 실적((단위: 백만 달러))

- 부평국가산업단지의 수출 실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2004년 266백만 달러에서 2023년 기준 567백만 달러로 약 2배 증가함
 - 2020년의 경우, 2016년 422백만 달러에서 354백만 달러로 감소했지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의 특수성에 기인함
 - 수출 실적은 2023년에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 막혀있던 수출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

3. 고용 현황

가. 고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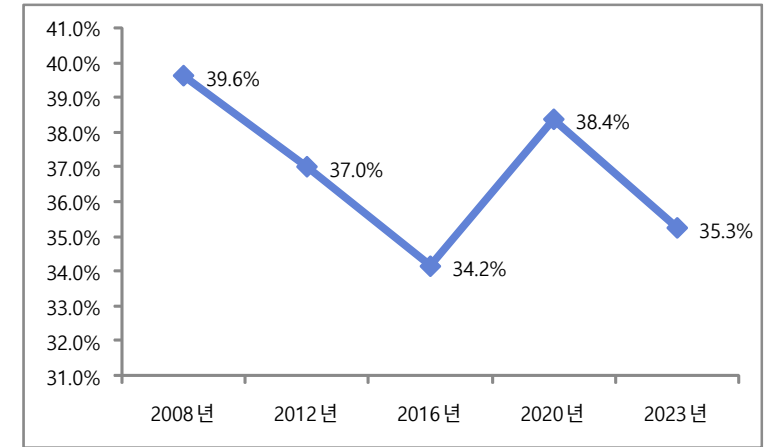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그림 4-11] 부평국가산업단지 고용 현황

- 부평국가산업단지의 고용은 감소하는 추세임
 - 2004년 7,471명에서 2023년 10,630으로 증가함
 - 그러나 2012년 13,568명을 최대로 이후로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체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고용 현황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
 - 또한 새로운 기술도입에 따른 자동화가 진전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나. 여성 고용률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그림 4-12] 부평국가산업단지 여성 고용률

- 부평국가산업단지의 여성 고용률은 감소하는 추세
 - 2004년 39.6%에서 2023년 35.3%로 감소함
 - 제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평국가산업단지의 특성상 여성 고용률은 낮을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자동화가 진전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한 현재 상황을 볼 때, 여성도 충분히 제조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캠페인이 필요함

제1절 국내 산업단지의 기능과 역할 변화
제2절 해외 사례 및 시사점

제5장 국내외 산업단지의 기능 및 역할 변화

제1절 국내 산업단지의 기능과 역할 변화

1. 산업단지의 융·복합화

가. 산업단지 융·복합화의 개념

- 다양한 산업과 기술, 그리고 기업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단지를 재편성하고 발전시키는 것
- 기존의 산업단지가 특정 업종이나 산업에 집중하는 반면, 융·복합화한 산업단지는 다양한 산업이 집적해 협업과 기술 융합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짐
- 융·복합화는 제조업,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에너지 등 여러 분야의 기업이 한 공간에서 공동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경제학자 오설리반(Arthur O' Sullivan)은 그의 저서 『도시경제학(Urban Economics)』에서 도시 내 집적의 경제, 규모의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지역화 경제’와 ‘도시화 경제’로 구분하여 설명함
- 먼저, ‘지역화 경제’는 동일한 산업이 모여 있는 군집(Cluster)을 통해 생산과정의 효율화를 통해 생산비용을 낮춤으로써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성장을 끌어낼 수 있다고 언급함

- 반면, ‘도시화 경제’는 도시 내에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다양한 제품과 기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의 교류(공식적, 비공식적)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
- 두 가지 형태는 방식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주어진 여건하에서 혁신을 찾아낸다는 점에서 공통적임
- 그러나 설리반은 다양화한 기업이 모이는 도시가 한 산업에 특화된 도시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강조
- 다르게 표현하자면, 산업단지의 융·복합화가 단일산업 단지의 집적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함

나. 산업단지 융·복합화의 진화

- 융·복합화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서로 다른 산업 간 또는 기술 간 융·복합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음
- 기술 발전이 빠른 현시점에서 다양화·전문화해 가는 산업의 기술 요구를 만족시키고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상황
- 이미 IT, BT, CT, NT 등 여러 분야에서 다른 산업 간 혹은 같은 산업 내에서 융·복합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특히,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술의 획득이 쉬워지고 기술개발 및 확산 속도 또한 크게 빨라지고 있으며, IT산업이 산업 전체의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선도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음¹⁾

1) 산업연구원(2008), 「산업단지 관리 개선방안 연구」, 52쪽 인용

- 알파고(AlphaGo)로 잘 알려진 AI 개발자 허사비스(D. Hassabis)가 2024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님
- ‘단백질 접힘’의 구조를 밝히는 일은 매우 어려운데, 2020년에 만들어진 인공지능 ‘알파폴드2’가 단백질 접힘 구조의 사례를 예측하여 지금까지 190개국 200만 명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2억 개의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 내는 토대를 마련²⁾
- 컴퓨터공학, 인공지능 관련 산업이 화학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산업 간 융복합의 대표적 사례로서 하나의 상징과도 같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산업 간, 기술 간 융·복합화는 다양한 산업이 모인 지역에서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며, 융·복합화를 촉진하여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낙후된 기존 산업에도 새롭게 적용하여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가능성도 열리게 됨

다. 산업단지 융·복합화의 주요 목표와 장점

- 산업단지 융·복합화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짐
- 산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
 - 서로 다른 산업 간의 기술과 자원공유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음
 - 예를 들어, 전통 제조업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 제조를 구현하거나 바이오와 IT가 결합해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혁신을 이루는 방식
-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비용 절감

2) 한겨레 신문(2024.10.09. 일자), ‘노벨 화학상도 AI 열풍...‘알파고의 아버지’ 허사비스·점퍼 수상’(검색일: 2024.10.31.)

- 융·복합화된 산업단지에 배치한 공공 인프라, 시설, 장비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중소기업도 장비를 공유하며 생산성을 높일 기회가 제공됨
- 연구개발(R&D) 활성화
 -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며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음
-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연관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산업단지 융·복합화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중요한 산업 발전 전략이 될 것임
- 최근 산업단지 융·복합화에 대한 많은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판교테크노밸리

2. 첨단산업단지의 확대 -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가. 판교테크노밸리 개요

- 국내 첨단산업단지 중 성공 사례는 ‘판교테크노밸리’
- 현재, 판교테크노밸리는 대한민국 제1의 융복합 혁신클러스터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1+5 Digital City 경기도 신성장산업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
- 이를 위해 R(Research), P(People), I(Information), T(Trade)가 집적된 글로벌 IT·BT·CT·NT 중심의 글로벌 융복합 R&D 허브 기능을 갖추면서,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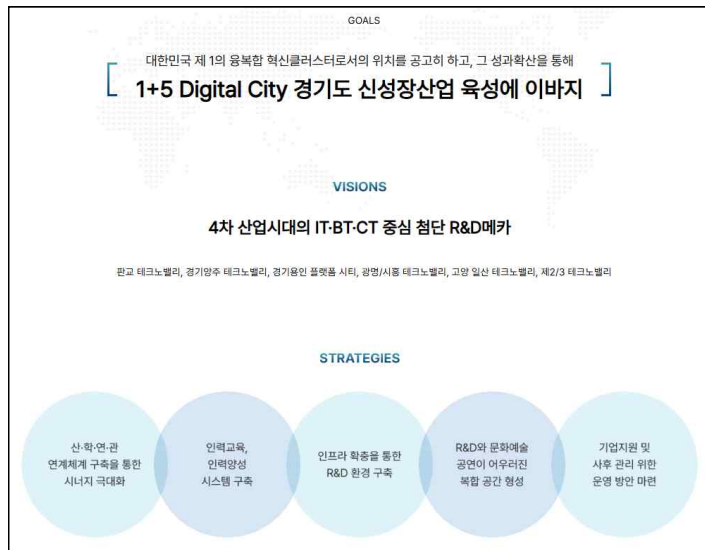
혁신, 인력양성, 고용 창출, 국제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등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조성된 경기도의 대표적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 잡는 것임

□ '4차 산업 시대의 IT·BT·CT 중심 첨단 R&D 메카'라는 비전을 수립

○ 이러한 비전 아래,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경기용인 플랫폼 시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제2/3 테크노밸리를 경기도 지역에 구축

□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5대 전략을 수행

○ '산·학·연·관, 인력교육', '인력양성 시스템구축', '인프라 확충을 통한 R&D 환경 구축', 'R&D와 문화예술 공연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 조성', '기업지원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운영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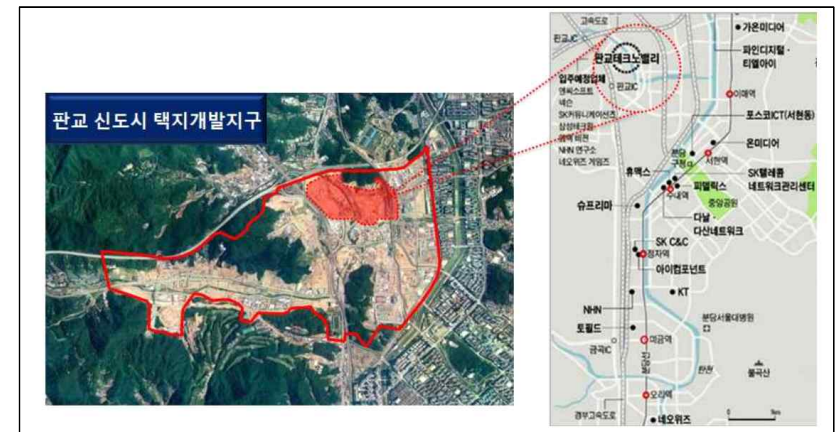
자료 : 판교테크노밸리 홈페이지

[그림 5-1] 판교테크노밸리 목표 및 비전

□ 현재, 제1판교테크노밸리, 제2판교테크노밸리가 운영 중이며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2025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계획을 발표함

○ 제1판교테크노밸리는 2006년 착공하여 2012년부터 IT기업들이 입주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에 44개 컨소시엄 중 43개가 완공됐고 2020년에 44개 컨소시엄이 모두 완공됨

□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총사업 기간 2005년~2015년을 목표로, 사업비 5조 2,705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단지임



자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2010), 「판교테크노밸리 운영전략과 과제」, 21쪽 인용

[그림 5-2] 판교테크노밸리 주변 조감도

<표 5-1> 판교테크노밸리 개발사업 개요 및 추진 경과

위치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일원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
계	661,925 ㎡(약 20만 평) (판교신도시개발면적 : 8,922천㎡)
기간	2005~2015년
사업비	경기도(경기도시공사 대행)
추진경과	2004.12.30. 판교신도시 실시계획 승인 (판교테크노밸리 특별계획구역)
	2011.05.31 용지 분양 완료
	2011.07.21.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내 판교테크노밸리지원단 조직 신설
	2012.07. 44개 컨소시엄 중 20개 완공, 판교테크노밸리 BI 발표
	2016.03. 44개 컨소시엄 중 43개 완공,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
	2019.02. 입주기업 매출 100조 돌파
	2020.12. 44개 컨소시엄 완공 완료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2014.03), 「이슈 & 진단」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과 시사점」, 1쪽 인용, 판교테크노밸리 홈페이지

<표 5-2> 판교테크노밸리 공급 용지 기능

공급용도	필지	총면적(㎡)	도입기능
계	44	454,96	
초청연구용지	6	48,14	국내외 글로벌 R&D 기관 등
일반연구용지	26	267,450	연구 집적시설, 연구 개발시설, 산·학·연 공동연구센터 등
연구지원용지	6	117,651	데이터센터, 금융, 비즈니스, 지원시설 등
주차장	6	21,716	주차장범의 노외주차장

자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2010), 「판교테크노밸리 운영전략과 과제」, 21쪽 인용

- 제2판교테크노밸리는 2015년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 진행 중
- 아직 준공 전이지만, 2024년 5월 기준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562개 기업

이 입주하였으며, 실태조사에 응한 511개 기업은 IT 339개(66.3%), BT 54개(10.6%), CT 46개(9%), 기타 72개(14.1%)로 구성되어 있음

– 입주기업의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총매출액 2조 1,508억 원 중 IT기업 1조 4,236억 원(66.2%), BT기업 1,439억 원(6.7%), CT기업 1,457억 원(6.8%), 기타 4,376억 원(20.4%)인 것으로 나타남

-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의 자족용지에 7만 3천㎡의 부지, 연면적 50만㎡의 규모로 사업비 1조 7천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로 직(職)·주(住)·락(樂)·학(學) –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4가지 주제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힘³⁾

나. 판교테크노밸리 실태조사 분석

- 현재, 제2판교테크노밸리와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사업단지 조성 중이므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제1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제2판교테크노밸리, 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이어짐

- 판교테크노밸리는 한국 ICT 성공기업과 성장산업의 새로운 집적지로 부상하였으며, 한국 상위 10대 게임 업체 중 7개가 입주, 입주기업의 2/3가 중견기업 이상으로 IT(정보기술)–BT(생명공학기술)–CT(문화콘텐츠기술) 등 첨단기업 유치에 성공⁴⁾

- 판교테크노밸리 홈페이지: 입주기업 1,622개, 종사자 수는 78,751명에 달함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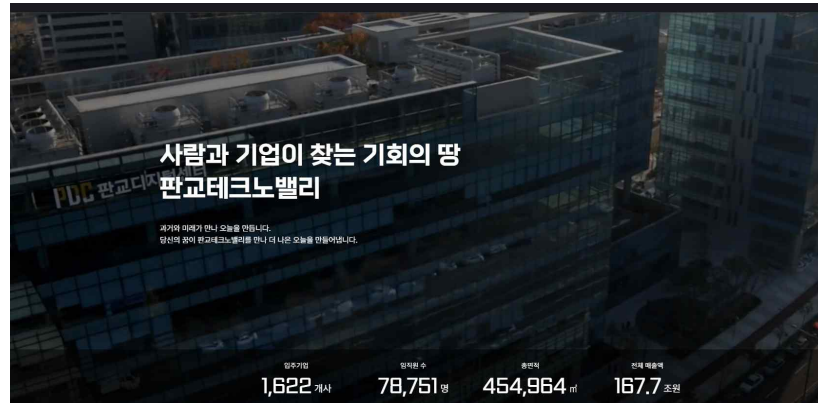
– 2014년 1,000여 개 기업

3) 산업일보(2024.02.01.일자), 「제3판교테크노밸리, 2025년 착공 2029년 준공」(검색일: 2024.10.31.)

4) 경기개발연구원(2014.03), 「이슈 & 진단」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과 시사점」, 1쪽 인용

5) 판교테크노밸리 홈페이지(검색일 2024. 10. 31)

- 2014년 당시 3만 8천여 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임



자료 : 판교테크노밸리 홈페이지(검색일: 2024.10.31)

[그림 5-3] 판교테크노밸리 홈페이지 메인화면

- 입주기업의 수는 2013년 870개에서 2023년 1,590개로 약 1.82배 증가함
 - 홈페이지상의 기업 수는 1,622개로 2013년 대비 1.86배 증가함
 - 2013년 이후 기업 수 2020년(1,697개)까지 꾸준히 증가했고, 이후 약간 감소했으나 2022년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함
- 업종 유형 및 비중은 IT 기업이 가장 큼
 - BT 기업은 2013년 9.2%에서 2022년 14%로 증가했지만, CT 기업은 2013년 17.2%에서 2015년 3.7%로 대폭 감소한 이후 증가하여 2022년 10.4%를 차지함
 - NT(나노기술) 기업은 약 1%대 비중을 차지함
 - 기타(기타 기술 분야, 공공기관 협회 등)의 경우 2013년 16%에서 2016년

3.9%까지 감소한 이후 2022년 9.7%로 증가함⁶⁾

<표 5-3>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유형 및 기업 수

단위: 개

연도	합계	IT	BT	CT	NT	기타
2013	870	-	-	-	-	-
2014	1,002	-	-	-	-	-
2015	1,121	-	-	-	-	-
2016	1,306	-	-	-	-	-
2017	1,270	-	-	-	-	-
2018	1,309	863	165	175	14	-
2019	1,259	830	164	165	17	83
2020	1,697	1,096	228	220	19	134
2021	1,619	1,082	233	161	-	143
2022	1,590	1,047	223	165	-	155

*2021년부터 제2판교테크노밸리 포함한 수치임

자료 : 판교테크노밸리 실태조사 결과2018~2023

<표 5-4>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업종 비중

단위: %

연도	IT	BT	CT	NT	기타
2013	55.9	9.2	17.2	1.4	16.
2014	64.1	10.2	8.6	1.1	15.7
2015	76.9	12.2	3.7	0.9	6.1
2016	79.4	10.8	4.8	0.9	3.9
2017	68.1	11.8	12.4	1.3	6.3
2018	65.9	12.6	13.4	1.1	7.0
2019	65.9	13	13.1	1.4	6.6
2020	64.6	13.4	13	1.1	7.9
2021	66.8	14.4	10	-	8.8
2022	65.8	14	10.4	-	9.7

*2021년부터 제2판교테크노밸리 포함한 수치임

자료 : 판교테크노밸리 실태조사 결과2018~2023

6) 2021년부터 NT는 기타 기업으로 포함

□ 입주기업 유형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기타 순임

- 2017년 이후 중소기업의 비중은 소폭 상승 또는 감소하지만, 전반적으로 86%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은 2020년 5.7% 이후 7% 수준임
- 대기업 비중은 2018년 3.6% 이후 감소하여 2022년 1.9%를 차지하고 있음

<표 5-5>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별 유형

단위: 개, %

연도	합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기타
2017	1,270 (100)	1,101 (86.7%)	82 (6.5%)	45 (3.5%)	42 (3.3%)
2018	1,309 (100)	1,128 (86.2%)	81 (6.2%)	53 (3.6%)	47 (3.6%)
2019	1,259 (100)	1,082 (85.9%)	91 (7.2%)	58 (2.2%)	28 (3.2%)
2020	1,697 (100)	1,487 (87.6%)	97 (5.7%)	64 (2.9%)	49 (2.9%)
2021	1,619 (100)	1,408 (87%)	120 (7.4%)	68 (1.4%)	23 (1.4%)
2022	1,590 (100)	1,374 (86.4%)	124 (7.8%)	61 (1.9%)	31 (1.9%)

*2021년부터 제2판교테크노밸리 포함한 수치임

자료 : 판교테크노밸리 실태조사 결과(2018~2023)

□ 판교테크노밸리의 종사자 수는 2019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총종사자는 2019년 63,050명에서 2022년 78,751명으로 증가했는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1.6%가 증가함
 - 2020년 제1판교테크노밸리 컨소시엄이 최종 완료됐고, 제2판교테크노밸리의 신규입주에 기인함
- 연구인력은 2018년 22,880명에서 2022년 23,996명으로 증가함
 - 다만, 2021년 26,606명에서 2022년 23,996명으로 소폭 감소함

- 여성인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인력은 2020년부터 증가함

□ 종사자 수에서 신규 인력의 비율 증가는 첨단산업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표 5-6> 판교테크노밸리 종사자수

단위: 명, %

연도	종사자 수	연구인력	여성인력	신규인력
2018	63,050	22,880 (36.29)	17,566 (27.86)	-
2019	64,497	23,249 (36.05)	18,276 (28.34)	-
2020	71,967	24,902 (34.6)	19,972 (27.8)	11,936 (16.6)
2021	73,443	26,606 (36.2)	21,290 (29)	13,103 (17.8)
2022	78,751	23,996 (30.5)	22,971 (29.2)	14,214 (18)

자료 : 판교테크노밸리 실태조사 결과(2018~2023)

□ 매출액은 2013년 54조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168조에 달함(직전 년도에 비해 38% 증가)

-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감률을 보면 2014년, 2016년, 2018년~2019년, 2022년에 10% 이상 성장했으며, 특히 2014년, 2019년, 2022년에는 20% 이상의 성장을 보임
- 실태조사 자료 한계로 업종유형별 매출액을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지만, 2017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IT(49.3%), BT(8.1%), CT(6%), NT(9%) 순의 비중을 차지함
 - 앞서, 입주기업 수 유형별 비중으로 NT 기업의 경우 1% 내외를 차지하지

만, 매출액은 기업 수 대비 크다는 것은 주목할 만함

- 2022년 총매출 167.7조 원은 같은 해 경기도 GRDP(564조 8,000여억 원)의 30%를 차지

<표 5-7> 판교테크노밸리 매출액 및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조, %

연도	합계	IT	BT	CT	NT	기타
2013	54	-	-	-	-	-
2014	69 (27.8)	-	-	-	-	-
2015	70 (1.9)	-	-	-	-	-
2016	78 (10.2)	-	-	-	-	-
2017	79 (2.3)	49.3	8.1	6.0	9.0	6.6
2018	87.5 (10.3)	-	-	-	-	-
2019	107.2 (22.5)	-	-	-	-	-
2020	109.9 (2.5)	-	-	-	-	-
2021	120.8 (9.9)	-	-	-	-	-
2022	167.7 (38.8)	-	-	-	-	-

자료 : 판교테크노밸리 실태조사 결과(2018~2023)

제2절 해외사례 및 시사점

1. 일본 나니와기업단지 협동조합

가. 단지 개요 및 설립 배경

- 도시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와 열악한 공장 환경에 시달리던 중소 기업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오사카시 니시라니구, 스미노에구)
 - 1980년에 민간 단체의 주도로 조성되었으며, 서로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이 모여 소규모 기업들의 집적 효과를 발휘하는 독특한 산업 집적지를 형성
 - 공업에 특화된 공업단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업소가 복합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기업 단지’라는 것이 큰 특징
 - 단지 내에는 제조, 금속 가공업, 기계 가공업, 건설업, 디자인 등의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으며, 현재 242개의 사업소가 모인 대규모 산업단지로 성장
 - 금속 가공 관련 사업소가 가장 많으면 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소가 주를 이룸
 - 기업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업무를 공동으로 수주 및 발주하고 제품 개발까지 함께하는 ‘공동 수주 그룹’의 활동이 매우 주목할 만함

나. ‘공동 수주 그룹’의 주요 활동

- 단지 형성 초기에는 다음 3개의 주요 공동경제사업그룹을 중심으로 활동
 - 오사카 종합건설협동조합: 1989년 2월에 건설 관련 12개 사업소가 참가하여 설립한 것으로 건물 해체, 철거, 기획, 설계, 시공, 관리까지 일괄 시스템을 제공
 - 나니와 유니온 프로덕트(NUP): 1988년 3월에 금속 가공업을 중심으로 설립한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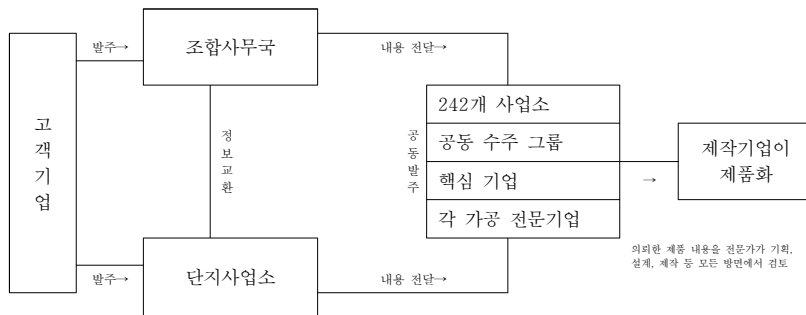
품으로 공동으로 업무를 수주하여 제품을 제작

- 나니와기업단지의 핵심적인 공동 수주 활동을 건인

○ 나니와 인테리어 엔드 디스플레이(NID): 1989년에 발족했으며, 단지 내 목공부회에서 발전하여 목공 관련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매장 인테리어와 전시회용 제품을 공동으로 제작

□ 현재는 ‘분야별 공동수주방식’을 ‘분야 횡단적’ 구조로 바꾸어 수주 및 발주를 전담으로 하는 조직을 설치

○ 주력인 금속 관계뿐만 아니라 건설, 목공, 전기, 자동차, 운송 등에서도 업무를 공동으로 수주 및 발주하는 구조를 형성



자료: 필자가 작성

[그림 5-4] 나니와기업단지 공동수주시스템

다. 기타 활동

□ 이 밖에도 공동 구인 사업, 경영정보 분석, 광고 사업, 고용촉진센터와 공동으로 각종 능력개발 세미나 개최, 복리후생 사업,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통한 공동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1) 공동 경제 및 정보 사업

- 단지 활성화 정책으로 발주 정보 게시판을 활용하여 기업 단지의 핵심적인 공동수주활동을 이끌고 있음

- 공적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조합원의 경제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추진함

- 매년 경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합원의 요구에 대응

- 각종 세미나 개최

- 조합 운영에 도움이 되는 선진 지역, 협동조합, 단체 기업 시찰



자료: 나니와기업단지 홈페이지

[그림 5-4] 중국경제 세미나(좌), 이종 업종 교류회(우)

○ (2) 교육 및 선전 사업

-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컴퓨터 강습

-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단지 내 안전 강습

- 협동조합 신문 발행



자료: 나니와기업단지 홈페이지

[그림 5-5] 나니와 기업단지 안전 교육(좌), 컴퓨터 강습(우)

○ (3) 공동구인 사업

- 고졸, 대졸 신입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 개최
- 신입사원을 위한 연수 실시
- 지역 고용센터와 연계한 구인



자료: 나니와기업단지 홈페이지

[그림 5-6] 공동구인 설명회(좌), 고용센터 연계(우)

○ (4) 조합원 복지 및 복리후생 사업

- 통상총회, 신년회

- 조합원을 주체로 한 스포츠 대회, 레크리에이션 행사
- 조합원 경조사 규정에 따른 수당 지급
- 나니와기업단지 그룹 보험 가입
- 상품 구매 할인, 근린시설 이용 할인
- 노동보험사업조합을 통한 노동재해보험, 고용보험사업



자료: 나니와 기업단지 홈페이지

[그림 5-7] 기업단지 축제(좌), 볼링 대회(우)

○ (5) 공동시설관리운영 사업

- 조합회관 유지, 관리 및 후생시설(식당 카페, 매점) 운영
- 조합 주차장 관리 운영
- 조합 공동공장 관리 운영
- 단지 내 가로등 등 공동시설 관리, 운영



자료: 나니와 기업단지 홈페이지

[그림 5-8] 조합 주차장(좌), 카페(우)

○ (6) 노동 안전 및 위생 사업

- 노동안전위생법에 근거하여 매년 2회 집단 건강검진과 진단 결과 설명회 개최
- 전국 노동 주간, 위생 주간 선전 활동
- 소화기 점검 보고 운동
- 단지 내 일괄 청소, 미화 운동 및 녹지화 추진 운동



자료: 나니와 기업단지 홈페이지

[그림 5-9] 집단 건강진단(좌), 녹지화 추진 운동(우)

라. 시사점

- ‘공동수주’를 통한 지역 내 거래 촉진은 지역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침
- 지역 내에서 기업 간 거래가 활발해지면 자본과 자원이 지역 내부에서 순환하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음
 - 이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지역에서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창출함
 - 또한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짐으로써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적 자립을 확보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제적 순환은 지역경제를 보다 탄탄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 중소기업 집적을 통한 협업은 다양한 중소기업이 모여 공동 수주 및 제품 개발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개별적으로는 처리하기 힘든 대규모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음
- 특히, 집적 효과로 인해 지역산업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데, 지역 내 기업들의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최대한 활용한 제품 개발과 연구는 지역 전체의 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
 - 단지 내 기업은 그룹으로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공동 홍보를 추진하여 단지 전체의 수주 능력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단지 내 기업 간의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내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 나아가, 나니와기업단지에서는 차세대 경영자들이 중심이 되어 기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는 활동(콜럼버스 모임)이 진행되고 있어, 단지의 활력을 유지하고 있음

2. 포르투갈 Taguspark(타구스파크)

가. Oeiras Valley의 Taguspark

□ Taguspark는 포르투갈 Oeiras에 위치함

○ Oeiras(오에이라스)는 포르투갈 리스보아현의 도시로, 수도 리스본에서 약 15km 서쪽에 위치함

– 도시의 면적은 약 45.90km²이고, 2021년 3월 현재 기준 총인구수는 약 171,658명 임⁷⁾

– 공항과는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철도, 버스 등의 주변 대중교통이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어 리스본에서의 접근이 상당히 용이함

– Oeiras는 24,117개의 중소기업과 106개의 대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리스본에 이어 두 번째로 대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도시임⁸⁾

□ Oeiras Valley

○ Oeiras에는 Oeiras Valley라는 산업, 과학, 기업, 각종 인프라 등이 집적해 있는 복합적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음

– 이곳에는 다국적기업, 과학 및 기술 연구소, 사무시설, 편의시설, 상업시설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 입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및 과학 기술 단지는 Taguspark를 비롯하여 Lagoas Park, Quinta da Fonte, Arquiparque, Agrotech Campus 등이 있음

– Oeiras Valley는 Oeiras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그 목표는 국가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기업, 기술, 산업, 각종 인프라가 구축된 복합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임

7) https://www.citypopulation.de/en/portugal/admin/lisboa/1711110__oeiras/ (검색일: 2024. 10. 13)

8) <https://oeirasvalley.com/en/empresas-instaladas/> (검색일: 2024. 10. 15)

– 이들이 구축한 복합적 생태계를 통해서 Oeiras가 최고의 인재, 최고의 아이디어, 최고의 기술이 집합되는 수출 지자체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실현하는 데 그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나. Taguspark

□ 일반현황

○ 1992년 정부 주도로 설립된 포르투갈 최초의 과학 및 응용 기술단지

– Oeiras Valley 중심부에 위치한 Taguspark는 총면적이 360ha로, 그 가운데 150ha의 공간에 약 160개의 기업과 26개의 스타트업이 집적해 있음⁹⁾

–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Taguspark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임

○ 과학 및 응용 기술의 생태계

– Taguspark에는 국내 및 다국적기업, 대학, 인큐베이터, 연구 센터와 지식과 혁신을 연결하는 수많은 관련기관이 모여 있음

– 또한, 정보 기술, 통신, 전자, 재료, 계측, 생산, 에너지, 환경, 기술 검사 및 컨설팅, 생명 공학, 정밀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 약 1만 6,000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음

– Taguspark에 입주한 기업들의 90% 이상이 응용과학 및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있음

○ 민관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학 및 응용 기술단지

– 지분구조를 보면, Oeiras 시의회가 19.16%로 가장 높은 비율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¹⁰⁾

– 그 뒤를 이어 IST Instituto Superior Técnico가 12.64%, Emerica가

9) <https://taguspark.pt/empresas/> (검색일: 2024. 10. 13)

10) <https://taguspark.pt/quem-somos/> (검색일: 2024. 10. 15)

12.53% 등을 소유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은행, 대학, 연구소, 지자체 등 매우 다양함

- Taguspark는 처음에 정부 주도로 설립되었으나, 이후 Taguspark S.A라는 민간운영업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민간주도중심의 과학 및 응용 기술단지로 자리를 잡음



자료 : Taguspark 홈페이지

[그림 5-10] Taguspark 지도

□ Taguspark의 목표

- Taguspark는 기업, 연구 기관 및 대학 간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제 경쟁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함
- 과학 및 응용 기술단지의 설치, 개발, 홍보 및 관리뿐 아니라 해당 활동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다음 4가지 주요 임무 구현에 집중함
 - 첫째, 비즈니스, 혁신 및 교육 활동 개발
 - 둘째, 기업, 연구 개발 센터, 대학 간의 상호 작용을 촉진

- 셋째, 국제 경쟁환경을 조성

- 넷째,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촉진

- 특히, 통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자, 재생 에너지, 과학 및 화학 분야의 혁신에 그들의 역량을 집중하고 전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음

다. Taguspark의 주요 시설

□ Central Hub

- 총면적 9,000m² 규모의 다기능 공간으로, 중소기업을 수용하도록 설계됨
 - Central Hub에는 쇼핑 구역, 원형극장, 녹지공간이 있어 다채로운 전시가 주기적으로 기획되어 입주하고 있는 기업에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함
 - 매주 화요일에는 전통시장이 열리고, 매주 목요일에는 점심 콘서트가 개최 됨

□ Innovation Buildings

- 총면적 1,000m² 규모의 공간으로, 8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 혁신적인 기술을 확보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인큐베이터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음
 -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를 발굴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여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음

□ Technology Buildings

- 총면적 1,000m² 규모의 공간으로, 8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본사, 연구소, 생산거점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다방면에서 필요에 맞는 목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그 활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자료 : Taguspark 홈페이지

[그림 #-11] Taguspark 주요시설

□ IST - INSTITUTO SUPERIOR TÉCNICO

- 포르투갈에서 가장 큰 공과대학으로, 2000년부터 Taguspark에 입주하여 IST 캠퍼스를 운영함
 - Taguspark에 IST 캠퍼스를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공존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기업들로부터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각종 기술과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유받을 수 있음

□ ISQ - WELDING AND QUALITY INSTITUTE

- 엔지니어링, 컨설팅, 검사, 테스트, 교육, 연구 개발 및 혁신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과학기술 연구기관임
 - Taguspark에 최초로 입주한 과학기술 연구기관임

□ 그 외의 시설

- 은행, 쇼핑몰, 베이커리, 케이터링 시설 등 Taguspark에서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상업시설을 비롯하여 전시장, 회의실, 컨퍼런스 센터, 체육관, 학교, 치과, 전통시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음
 - 응용 및 과학기술단지로서의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 비즈니스 기능까지도 수행해 낼 수 있는 각종 인프라가 구축된 복합 생태계가 조성됨

라. Taguspark의 핵심 사업

□ Taguspark Incubator

-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 기업을 설립하려는 사람들을 다각적으로 지원 및 관리해 주는 사업
 - 혁신적인 기술이 바탕 된 기업을 설립할 의지를 가진 창조적인 기업가를 지원해 주고, 이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구체화하고 상품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 및 관리함
- 다양한 기업들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충분히 공유하여 스타트업의 경영 및 사업의 실패 가능성을 낮추고, 그들이 직면한 문제점을 찾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임
 - 기업을 설립하고 사업하려는 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 Taguspark에 이미 입주해 있는 기업들과 네트워크 및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 제공함
 - Taguspark의 입주 기업으로 선정되면, 사무공간, 공유 실험실 및 실험장비, 교육실, 상업시설 등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인프라의 혜택을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제공받음

□ Taguspark Incubator 지원 및 협력 단계는 3단계로 구성됨

○ 1단계: 사전 인큐베이션 단계 (아이디어에서 프로젝트까지)

-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 기업을 설립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총 6개월에 걸쳐 아이디어 단계부터 프로젝트 단계까지 기획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지원함
- Taguspark Incubator는 기업 설립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아울러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품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함

○ 2단계: 인큐베이션 단계 (프로젝트에서 비즈니스까지)

- 1단계를 통해 아이디어에서 프로젝트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 뒤, 총 12개월에 걸쳐 프로젝트 단계를 넘어 비즈니스 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함
- 2단계에서는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계획 및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함은 물론이고, 판매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며, 나아가 기업에 필요한 투자처를 찾아 선별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함

○ 3단계: 사업 개발 단계 (프로젝트에서 비즈니스까지)

- Taguspark Incubator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는 총 18개월에 걸쳐 사업을 개발하고, 제품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기업의 매출 증가로 충실히 이어질 수 있는 전략을 다방면에서 구상함
- 이를 통해서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고 국제화를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함

자료 : Taguspark 홈페이지

[그림 5-12] Taguspark Incubator 지원

마. 시사점

- 산업단지는 특정한 장소에 기업들을 집적해 놓은 단순한 공간이 아님

○ Taguspark와 같은 종합적인 비즈니스 단지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통적인 산업단지의 역할을 넘어서 그 진화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강력히 요구됨

- Incubator를 통해서 스타트업,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 단지 내에서 더욱 편안하고 편리하게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와 인프라가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입주 기업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이를 신속하게 적용하는 노력이 요구됨

□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체제가 구축된 복합 클러스터가 되어야 함

○ 입주 기업 간의 상생 관계, 나아가 기업, 대학 및 연구자, 지자체와의 협력 및 지원 관계가 구축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야 함

– 기업, 연구 센터 및 대학, 지자체를 연결하여 무한한 기회가 있는 네트워킹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산업단지는 다양한 주체 간의 제한 없는 접근을 다방면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관·학 클러스터를 견고히 하여 각 주체가 서로 연계해서 기술혁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함

– 대학이 생산해 내는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기반의 질 높고 우수한 인력이 끊임없이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함

– 나아가, 산업단지는 대학에서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복합 생태계로서의 역할 수행에 더욱 집중해야 함

– 아울러, 기술 이전이 단기적인 일회성 기술 이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기술 이전이 유지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자체의 세심한 행정이 수반되어야 함

제1절 부평국가산업단지 활성화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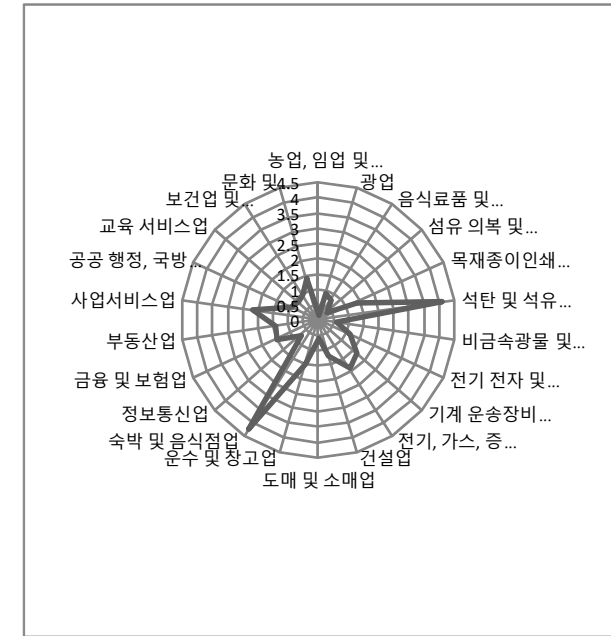
제2절 부평국가산업단지 발전 방향

제6장 부평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제1절 부평국가산업단지 활성화의 필요성

1. 주력사업 및 육성 업종 선정

- 부평국가산업단지의 현 주력사업은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전기 전자 제조업, 기계 제조업 등
- 업체 수는 전기 전자 제조업 관련 기업이 약 600개, 기계 제조업 관련 기업이 약 430개로 가장 많음
- 한국GM(주)과 동서식품이 위치해 부가가치가 높고 규모가 큰 최종생산품이 제조되며 부평국가산업단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주력사업으로 선정
- 한편, 인천은 미래 전략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4차 산업혁명 형태의 산업으로 변화를 꾀하는 중
- 인천지역의 특화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4.22),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4.09), 전력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1.88) 순
- 2023년에 발표된 ‘인천시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집중육성 6대 전략산업을 선정
 - 6개 전략산업은 바이오, 반도체, 로봇, 디지털·데이터, 미래 자동차, 항공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23), 인천지역 기업경영분석(2022)을 바탕으로 작성

[그림 6-1] 2022년 인천의 특화계수

- 부평국가산업단지의 육성 사업은 음식료품, 자동차로 선정
- 현재 부평국가산업단지의 주요 산업은 자동차, 음식료품, 전기 전자, 기계 등
- 특화계수에 따르면, 인천의 특화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 에너지 등
- 인천시에서 미래산업으로 선정한 산업은 바이오, 반도체, 로봇, 디지털·데이터, 미래 자동차, 항공
- 이 세 경우를 조합하면 부평국가산업단지는 음식료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속한 업종과 히든챔피언 기계 제조업 기업을 우선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인천 내 특화산업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이 있으며 이는 음식료품에 대한 꾸준한 소비시장이 존재함을 의미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이미 존재하는 기계, 전기 전자와 연계하고 있으며 미래산업으로 선정한 미래 자동차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 기계 제조업은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하나의 기계에 특화되어 국내 1위, 혹은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히든챔피언 형태의 기업이 필요

○ 이 외에도 장기 지속 과제로 디지털데이터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육성할 주요 업종으로 기능성 식품, 스마트-세이프티 자동차를 선정했고, 히든챔피언 기계 제조업 기업 육성이 도출됨

○ 기능성 식품 : 현재 부평국가산업단지에는 동서식품이 입주해 있으며 미래의 식품산업은 기술의 발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면역력 강화, 소화 촉진,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주는 슈퍼푸드 형태와 맞춤형 영양소를 제공하는 식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수요 증가 모델에 따라 기능성 식품으로의 다품종 소량 생산이 요구되는 시점

○ 스마트-세이프티 자동차 : 최근 미래 자동차는 IT를 결합한 자율주행이 각광받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 분야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 부평국가산업단지에는 한국GM(주)를 비롯해 전자 전기 기업이 많이 분포해 있으며 IT와 융합한 스마트 자동차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이와 함께 단지 내 기계 제조업과 연계하여 안전에 중점을 둔 스마트 자동

차 개발을 위한 환경도 갖추고 있음

○ 히든챔피언 기계 제조업 기업 육성 : 히든챔피언은 특정 산업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면서도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들을 뜻함

- 부평국가산업단지의 기계 제조업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높은 숙련공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연구개발 투자와 특정 니치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경영전략이 마련되면 히든챔피언 기업으로서의 발돋움 가능하며 이를 위한 기계 제조업 육성이 필요한 시점

2. 부평국가산업단지 활성화의 필요성

□ 산업단지의 고도화와 새로운 활력 여건 조성 필요

○ 부평국가산업단지는 부평구, 나아가서 인천광역시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으나 최근 산업단지의 활력도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

○ 이는 첨단산업으로서의 변화 정체와 산업지원 시설 및 경쟁력 약화 등이 주요 원인이며 수도권 내 타 산업단지에 비해 매력력이 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여건 조성이 필요한 시점

□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첨단 도심 산업단지로의 변화 필요

○ 부평국가산업단지는 인천지역 내 소비뿐만 아니라 배후 지역인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에 있어 입지 여건이 매우 우수함

○ 우수한 노동력이 다수 존재하며 도심 내 위치하는 특성과 지하철 등 편리한 대중교통을 보유하여 노동자들의 정주 문제와 교육 문제 또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

- 부평국가산업단지는 인천-부평 지역 내 도시성장을 추구하는 도심형 산업단지로서의 입지 여건과 노동자 복지 등 잠재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주변 도시지역에 맞는 친환경적이고 노동친화적인 첨단산업단지로서의 미래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음
-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업종전환 및 기업가치 향상을 통한 인천-부평지역의 신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
- 국내외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한 시점에서 기존 주력업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의 자연스러운 업종 변화를 통해 지역 성장의 발판을 마련
- 식료품 산업의 기능성 강화와 자동차 산업의 스마트-세이프티 형태의 집중은 미래 시장수요 확보에 유리하며, 부평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업-중소기업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히든챔피언 기계 산업 기업 육성은 인천-부평 지역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평국가산업단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어 산업단지의 매력도를 높이고 활성화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방안임

제2절 부평국가산업단지 발전 방향

1. SWOT 분석

□ 장점

- 우수한 지리적 위치
 - 배후지에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이 위치해 대규모 소비시장을 보유함
 - 지하철, 버스 등 편리한 대중교통과 경인고속도로 및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다양한 도심 고속도로를 보유하여 노동자들의 출퇴근과 물류 이동이 편리함
 - 인천항을 비롯한 대규모 항만과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하여 물류비 절감과 빠른 유통이 가능하여 수출에도 유리함
- 다양한 업종의 집적
 - 자동차, 식품, 전기 전자, 기계 등 다양한 업종이 기업이 모여 있어 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
- 우수한 노동력 수급
 - 수도권 내에 숙련된 노동력 확보가 가능하고, 다양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됨
 - 현재 우수한 인력들이 고용되어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음
- 산업 클러스터 효과
 - 다수의 제조업 기반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어, 협력사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음
 - 산업단지 내 동서식품, 한국GM(주)가 위치해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연계가 가능함

□ 약점

○ 노후화된 시설

- 1969년에 준공되어 조성한 지 오래된 산업단지이며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으며, 이는 생산성 저하와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 인천지역 원도심 지역에 위치하여 있으며 주변 인프라 또한 노후화 문제가 존재

○ 환경문제 발생 가능

-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이며, 도심에 위치해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도 있음
- 실제로 대기오염에 의한 악취 문제와 환경오염물질 배출 문제가 있음

○ 고비용 구조

- 수도권 내 위치한 특성상 임대료, 인건비, 운영비 등 고정비용이 높아,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구조임

○ 대기업 의존

- 산업단지 내 동서식품, 한국GM(주)가 위치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 이들 대기업의 협력사 형태로 의존하는 구조로 대기업의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실제로 한국GM(주)이 제2공장을 폐쇄한 이후 산업단지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침

□ 기회

○ 정부의 지원 가능

- 정부의 스마트 공장 지원 정책과 디지털화 바람에 따라 첨단 제조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
- 오래된 산업단지로서 중소기업 지원 및 산업단지 리모델링 정책을 통해 인프라

를 개선하고, 지원금,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과 연계 산업 육성

- 현재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과의 연계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 부평구, 부평구의회,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 정책 마련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역 내 시민들의 관심 또한 매우 높아 발전정책에 대한 여론 환기가 가능함

□ 위협

○ 국내외 경제환경 정세

- 고물가, 고금리 등의 경제환경으로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임
- 국제적으로 경제성장 둔화 상태이며 국내경제뿐만 아니라 부평산업단지도 영향을 받고 있음

○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

- 향후 고령화가 더 심화하면 노동력의 연령대 상승뿐만 아니라 노동력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노동력 수급 문제는 생산성 저하와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경쟁력 약화로 귀결됨

○ 규제 강화

- 수도권 공업단지 규제 정책으로 인해 세제 혜택 감소 등과 같은 각종 지원책 감소 가능
- 환경문제가 심화하여 규제가 강화되면서 환경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관련한 사업 부담이 커질 수 있음

-우수한 지리적 위치 -다양한 업종의 집적 -우수한 노동인력 수급 가능 -산업 클러스터 효과	-노후화된 시설 -환경문제 발생가능 -고비용구조 -대기업 의존
-정부 지원정책 -4차 산업혁명과 연계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국내외 경제환경 정체 -고령화와 인력부족 문제 -규제강화

자료 : 필자가 작성

[그림 6-2] 부평국가산업단지의 SWOT 분석

2. 부평국가산업단지 발전 방향

□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 및 상생 강화

- 대기업의 협력업체 일부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있으며 이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
- 대부분 종속적 관계의 심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형태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적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및 상호 교류 등을 적극 지원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상생협력전담기구가 함께 대-중소기업 협력의 매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술개발 및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여 양측 모두 시장 경쟁력을 확보

□ 산업단지 업종 고도화

- 기존 업종 중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업종이나 부가가치가 저하되는 업종 등을 첨단 지식기반 산업으로 전환하는 등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여 전통적인 제조업에 혁신을 도입하고 산업 구조를 다각화
- 현재 주력업종인 음식료품,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 등 제조업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계수와 신산업 정책을 참고하여 산업을 고도화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음식료품은 기능성 식품, 자동차 산업은 스마트-세이프티 자동차, 기계 제조업은 히든챔피언 기계 제조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

□ 노후시설 리모델링 및 인프라 개선

- 부평국가산업단지는 50년 이상 된 노후화 단지임
- 이러한 노후 산업단지는 업종 구조고도화도 시급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기반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의 악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내부의 낡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현대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의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변 대중교통 시스템과 주차구역을 개선하여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물류 이동을 최적화하기 위해 도로망을 개설하고 창고 등의 물류 중심지를 확충

□ 친환경 산업단지로의 전환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는 시장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환경오염방지,

소음 및 공해 저감, 에너지 효율화 등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업무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함

- 해외 수출과 지역 환경을 위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 시스템을 강화하여 환경 규제를 준수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불만을 줄일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 내 기업들 또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을 도입하도록 장려하고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 문화를 확산시켜야 함

□ 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축

- 인천지역에는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우수한 대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도 다수 존재
- 이러한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첨단 기술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으로 확장하는 기반을 마련
- 부품 조달, 생산 협력, 기술 공유 등을 위한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협업과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클러스터 효과를 극대화

□ 산업단지 내 정비

- 산업단지가 산업단지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고밀도 토지이용을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생산공간 외에 업무, 연구개발, 교육, 훈련, 주거, 문화복지시설 등의 복합공간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공간을 마련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부평국가산업단지는 토지이용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토지이용의 복합화를 통해 생산과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창조적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산업단지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경기개발연구원, 「이슈 & 진단」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과 시사점’, 2014.03.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판교테크노밸리 운영전략과 과제」, 2010.
부평구의회, 「주민친화적 출연기관 발전모형 도출 및 정책 과제 발굴 실시 용역」, 2023.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 3-1권』, 2021.
산업연구원, 「산업단지 관리 개선방안 연구」, 2008.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업체조사보고서」, 각년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각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23」, 2023.

<자 료>

나니와기업단지 협동조합, <http://www.nkdk.org/>
산업일보, ‘제3판교테크노밸리, 2025년 착공 2029년 준공’, 2024.02.01.일자.
판교테크노밸리, 판교테크노밸리 실태조사 결과, 각 년도
판교테크노밸리 홈페이지, <https://www.pangyotechnovalley.org/base/main/view>
한국산업단지공단 부평사무소, <https://kicoxbp.modoo.at/>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https://www.kama.or.kr/MainController>
한국GM(주), <https://www.gm-korea.co.kr/ko/home.html>
한겨레 신문, ‘노벨 화학상도 AI 열풍...‘알파고의 아버지’ 허서비스·점퍼 수상’, 2024.10.09. 일자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CITY POPULATION, <https://www.citypopulation.de/>
Google map, <https://www.google.co.kr/maps>
OEIRAS VALLEY, <https://oeirasvalley.com/>
TAGUSPARK, <https://taguspark.pt/>